Scale Practice For Architecture & Urban Design

건축·도시 설계를 위한 척도연습

오성훈 • 김원경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Contents

Prologue ····· 4

1 Human Scale

신체 ····· 9
생활 ····· 23
주택 ····· 33

2 Street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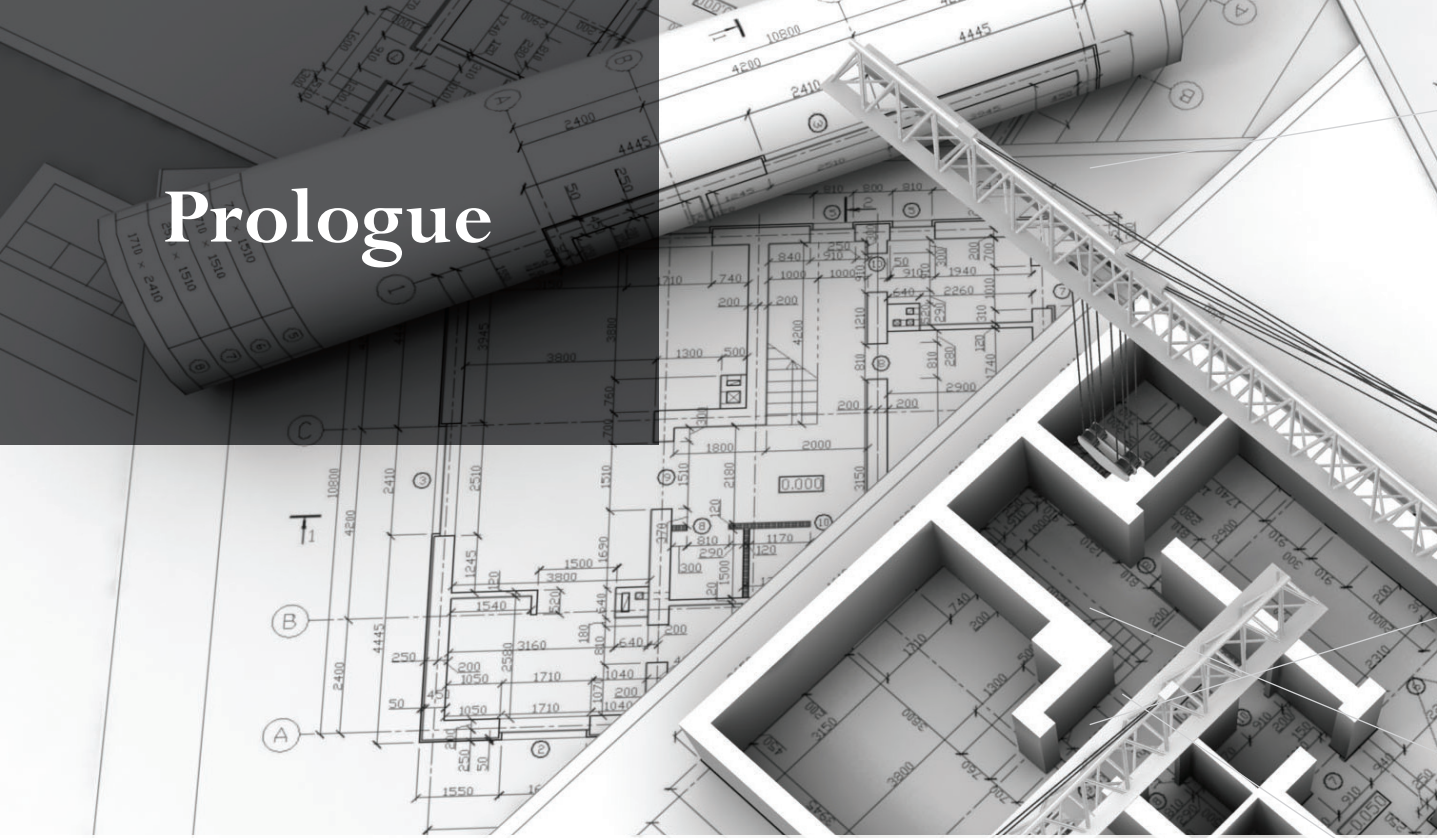
보행자 도로 ····· 45
자동차 도로 ····· 59
건축물 ····· 71
가로폭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비율 (D/H비) ····· 83

3 Urban Scale

공원, 광장 ····· 97
지구 ····· 113
도시 ·····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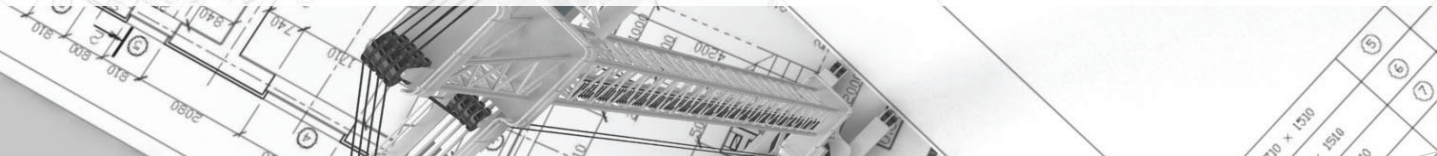
Epilogue ····· 140
References ·····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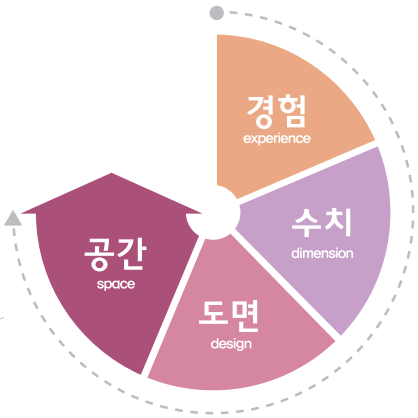
Prologue



공간을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계란 무엇인가, 설계와 계획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심오한 질문을 잠시 접어두더라도, 결국 설계는 숫자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설계의 결과물은 1.0미터 아니면 25센티미터 등 숫자의 세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면에서 일정한 숫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공간의 설계에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은 경험적인 영역에서 결정된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떠한 숫자의 범위에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낱말카드를 공중에 뿌리면서 멋진 영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원하는 숫자를 계산식으로 도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의 경험과 숫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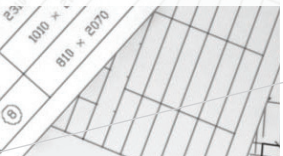




이 책은 매우 복잡다단한 공간에 대한 추상, 이해, 이론, 역사, 문화에 대한 담론적 상황을 잠시 접어두고, 기본적인 공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숫자에 친숙해지기를 권한다. 주변 공간의 치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숫자들을 익히고, 설계를 하면서 그러한 숫자들에 의한 경험을 자유자재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3미터의 공간은 어떠한 공간인가? 15센티미터는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게 되는가? 경험적 환원없이 공간의 설계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막연한 관행이나 성급한 추정에 의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쉽다.

공간적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이 구현되는 공간의 치수를 기억하는 일은, 결국 공간의 치수를 결정하는 설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들을 감각적으로 재고하는 역량을 갖추어 준다. 이러한 역량은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요소중의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러한 역량이 없다면 우리는 설계하면서 어떻게 숫자를 결정할 것인가? 타인들이 그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모듈에 맞추어 그려넣을 것인가? 숫자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없다면 설계라는 것도 주어진 수치에 따라 계획된 공간을 어림짐작으로 배치하는 형국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몸에서 시작하여 도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축척에 따른 숫자들을 기억하고 그 숫자들을 설계과정에서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설계는 숫자를 다루는 분야다. 아무리 추상적이고 우아한 개념도 결국은 도면에 구분선과 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설계도를 살펴보면서 도면에 제시된 수치들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치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악보를 읽으면서 음을 떠올리지 못하는 작곡가, 곡을 쓰면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작곡가는 없겠지만, 이를 도면과 설계자의 관계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이제 우리는 공간에 대한 숫자언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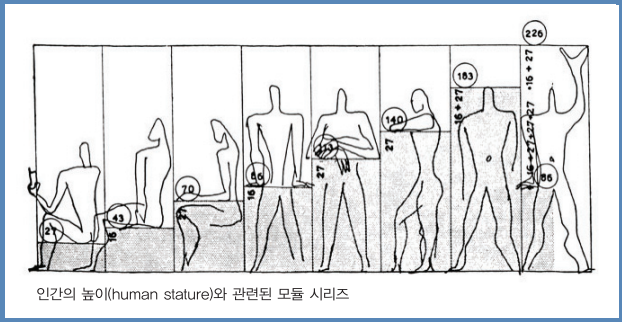


Chapter 1

Human Scale

이 장에서는 인간의 몸에 대한 숫자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에서 접하게 되는 물체에 대한 숫자, 그리고 집안의 여러 부분의 숫자에 대해 익히고자 한다. 가장 친숙한 것들,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의 크기를 익히는 일은 설계자에게 있어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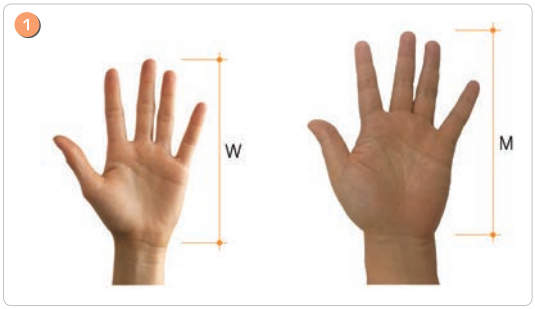
인간의 높이(human stature)와 관련된 모듈 시리즈

- 손
- 발
- 얼굴
- 팔길이
- 다리가쪽길이
- 앉은무릎높이
- 앉은팔꿈치높이
- 앉은어깨높이
- 앉은눈높이
- 앉은키
- 무릎높이
- 배꼽수준허리높이
- 굽힌팔꿈치높이
- 어깨가쪽높이
- 눈높이
- 키
- 가슴너비
- 어깨너비

손을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했던 대표적인 예로 길이의 단위 '자(尺)'가 있다. '자'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벌려서 치수를 재는 형태를 상형한 문자로 약 30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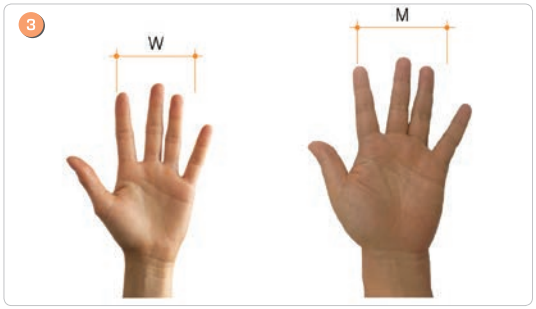
손직선길이

손목가쪽점 수준의 접힘선에서 손끝점까지의 직선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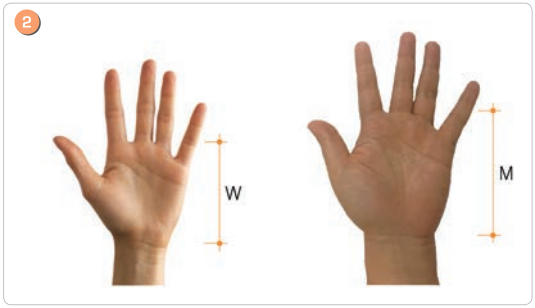
손너비

손안쪽점에서부터 손가쪽점까지의 직선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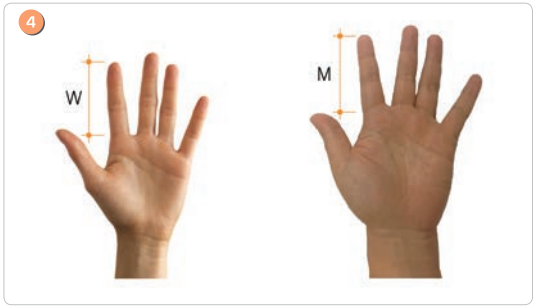
손바닥직선길이

손목가쪽점 수준의 접힘선에서 셋째손가락 가까운쪽 접힘선까지의 직선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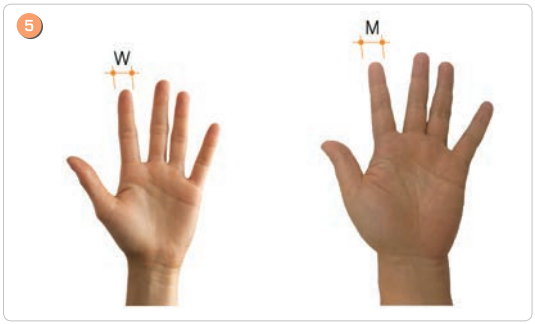
둘째손가락직선길이

둘째손가락 끝점에서 둘째손가락 첫째마디 접힘선까지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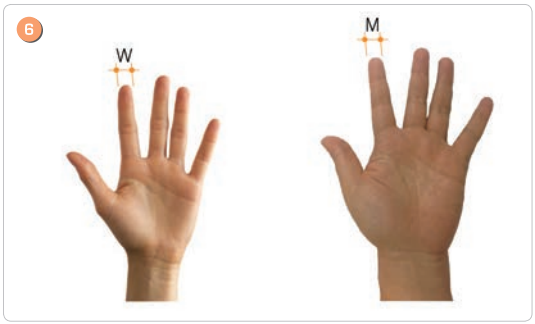


1. W:170mm, M:185mm 2. W:97mm, M:108mm 3. W:73mm, M:82mm 4. W:65mm, M:71mm

둘째손가락첫째관절너비



둘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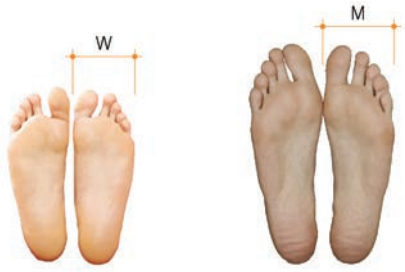
- 미국에서는 발의 뒤꿈치에서 발톱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피트(feet)'라는 단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약 30cm 정도이다.
- 어떤 리듬을 갖고 보행하는 개인의 보폭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폭을 기준으로 치수를 단위화 한 것이 '야드(yard)'나 우리나라의 '보(步)'등이 있다. 보통 몇 보를 걸었다 할 때처럼 보수로 표현하는 말은 수보, 수십보라고 하지, 수만 보라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보행 척도를 사용한 거리표현은 근거리에 관한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 1야드는 우리나라의 약 3자 정도이고,
- 1평은 6자×6자이다. (평과 보의 보조계량 단위로는 정(町) 혹은 정보(町步)가 있다.)
- 1정은 보의 3,000배로 3,000×1보(400/127) = 약 1만m^2이다.
- 또 1정은 약 1헥타르로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대단히 알기 쉽다.

5. W:16mm, M:19mm 6. W:14mm, M:16mm

발너비

발가쪽점에서 발안쪽점까지의 수평길이

7



가쪽복사높이

바닥면에서 가쪽복사점까지의 수직거리

9

발직선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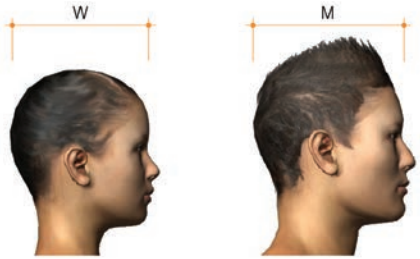
발꿈치점에서 발끝점까지의 직선길이

8

머리두께

눈살점에서 뒤통수돌출점까지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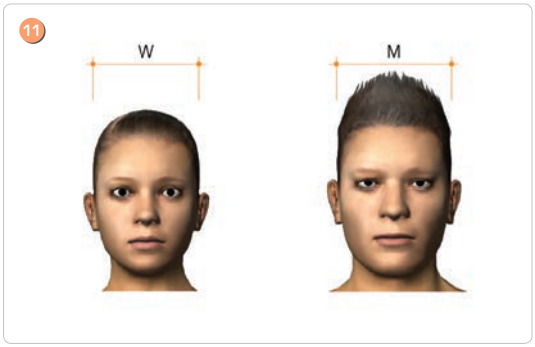
10



7. W:88mm, M:99mm 8. W:230mm, M:255mm 9. W:62mm, M:70mm 10. W:178mm, M:18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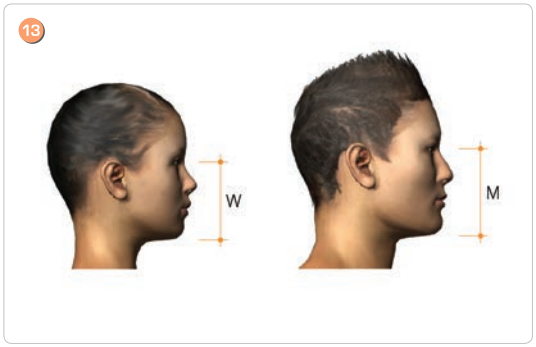
머리너비

양쪽 머리옆점 사이의 수평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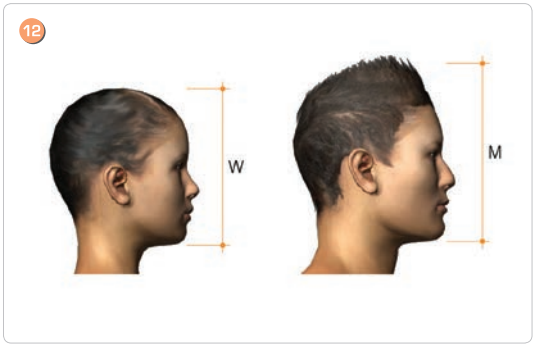
얼굴수직길이

코뿌리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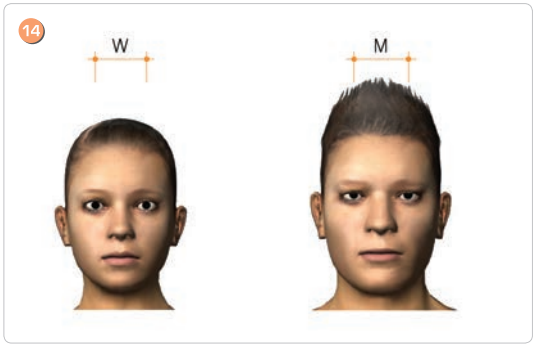
머리수직길이

머리마루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눈동자사이너비

양 눈동자 사이의 수평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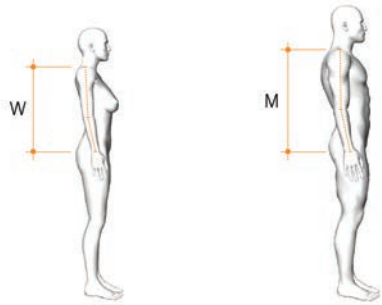


11. W:153mm, M:160mm 12. W:219mm, M:237mm 13. W:111mm, M:122mm 14. W:53mm, M:56mm

팔길이

어깨가쪽점에서 노뼈위점을 지나 손목안쪽점까지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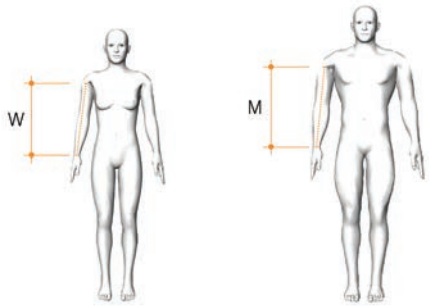
15



팔안쪽길이

겨드랑이점에서 손목안쪽점까지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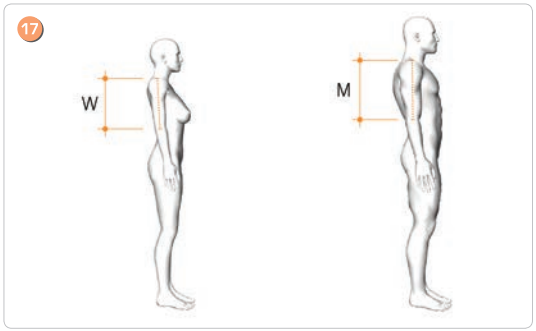
16



위팔길이

어깨가쪽점에서 노뼈위점까지의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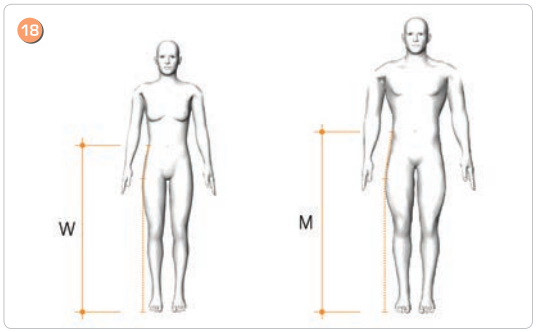
17



다리가쪽길이

허리옆점에서 바닥면까지의 길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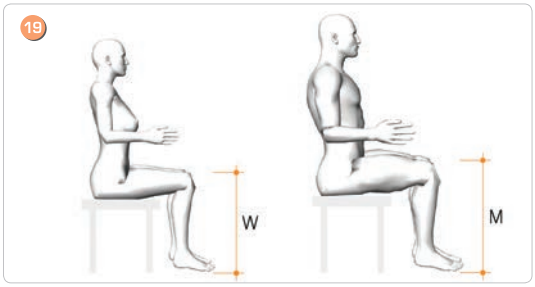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옆쪽에 서서, 줄자로 허리옆점에서 엉덩이의 윤곽선을 따라 엉덩이둘레선까지 체표길이를 재고, 이어서 수선을 내려 바닥면까지의 길이를 잰다.

15. W:547mm, M:588mm 16. W:438mm, M:513mm 17. W:319mm, M:337mm 18. W:1,002mm, M:1,063mm

앉은무릎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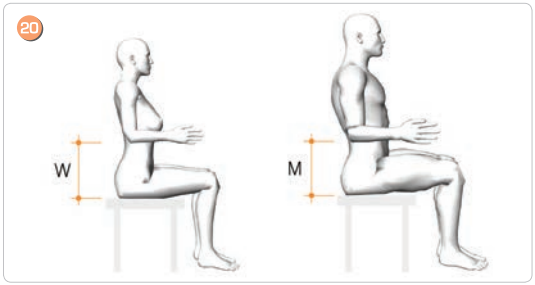
바닥면에서 무릎뼈위점까지의 수직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오른쪽에서 수직자를 피측정자의 오른쪽 다리 옆에 놓는다. 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로자의 아래가 무릎뼈위점에 나란히 닿도록 한 후 바닥면에서 무릎뼈위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앉은팔꿈치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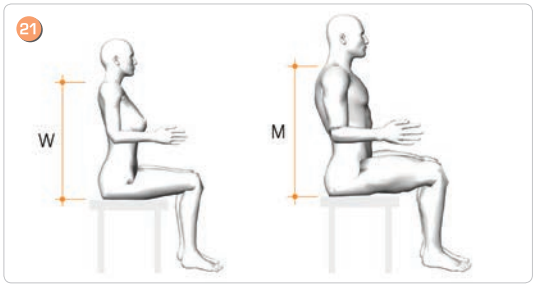
앉은면에서 팔꿈치아래점까지의 수직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뒤에서 수직자를 피측정자의 오른쪽 옆 측정대 위에 놓는다. 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로자 끝이 팔을 90° 로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의 가장 아래쪽에 닿도록 한 후 눈금을 읽는다.

앉은어깨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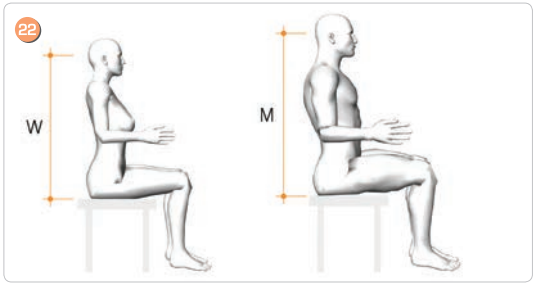
앉은면에서 어깨점까지의 수직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뒤에서 수직자를 피측정자의 오른쪽 옆 측정대 위에 놓는다. 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가로자 끝이 팔을 90° 로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의 가장 아래쪽에 닿도록 한 후 눈금을 읽는다.

앉은눈높이

앉은면에서 눈초리점까지의 수직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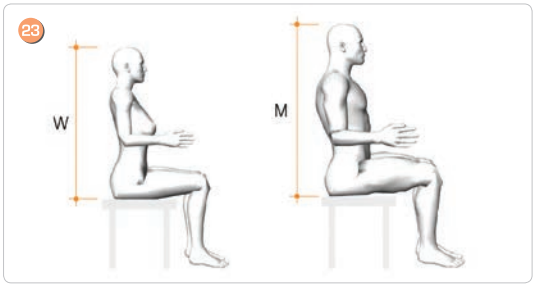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수직자를 피측정자의 오른쪽 뒤 측정대 위에 놓는다. 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수직자의 가로자 끝을 가볍게 잡아 눈초리점 수준에 오도록 한 후 앉은면에서 눈초리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19. W:487mm, M:527mm **20.** W:240mm, M:249mm **21.** W:555mm, M:593mm **22.** W:754mm, M:811mm

앉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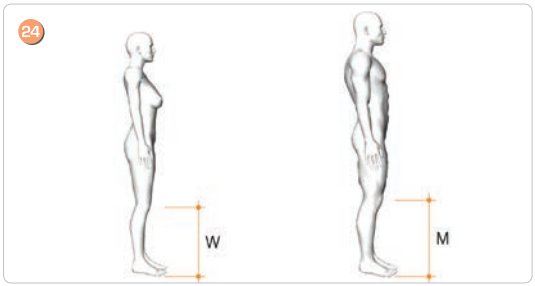
앉은면에서 머리마루점까지의 수직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왼쪽 뒤에 서서 한손으로 수직자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수직자의 가로자 끝을 가볍게 잡아 머리마루점에 닿도록 한 후 앉은면에서 머리마루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 신장을 H로 하면 앉은 높이는 약 0.55H이다.

무릎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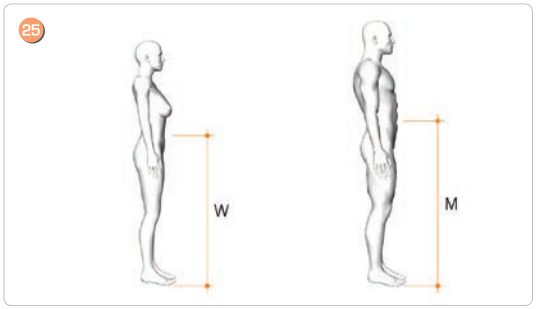
바닥면에서 정강뼈위점까지의 수직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오른쪽 앞에서 수직자를 잡아 피측정자의 앞쪽에 놓은 다음 가로자의 끝이 정강뼈점에 닿게 한 후 바닥면에서 이 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잰다.

배꼽수준 허리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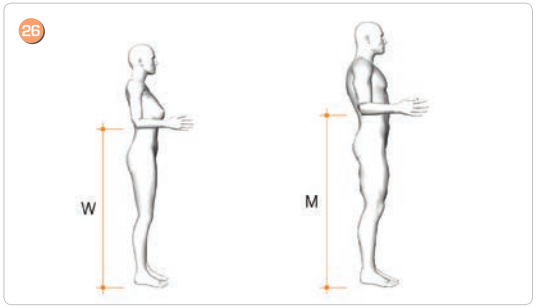
바닥면에서 배꼽점까지의 수직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오른쪽 옆에서 피측정자의 앞쪽에 수직자를 놓은 다음 바닥면에서 배꼽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잰다.

굽힌팔꿈치높이

바닥면에서 팔꿈치 아래점까지의 수직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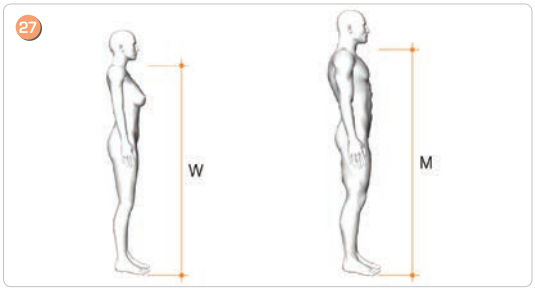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고 피측정자의 오른쪽 뒤 옆쪽에 놓은 다음 팔꿈치아래점에 닿게 한 후 바닥면에서 이 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잰다.

23. W:868mm, M:927mm **24.** W:414mm, M:460mm **25.** W:942mm, M:1,022mm **26.** W:972mm, M:1,056mm

어깨가쪽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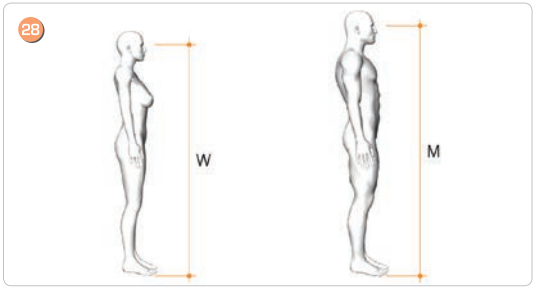
바닥면에서 어깨가쪽점까지의 수직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아 피측정자의 오른쪽 뒤에 놓고 가로자의 끝을 어깨가쪽점에 닿게 한 후, 바닥면에서 이 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눈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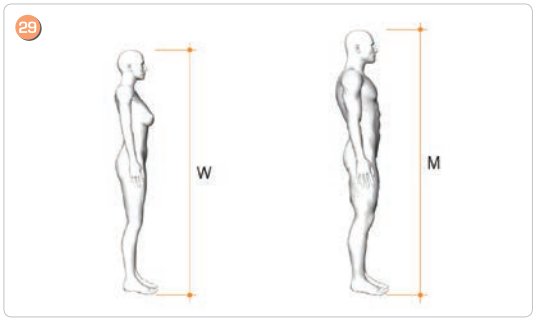
바닥면에서 눈초리점까지의 수직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아 피측정자의 오른쪽 뒤에 놓은 다음 바닥면에서 눈초리지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잰다. 자연스러운 숨쉬기의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 신장을 H로 하면 눈높이는 약 0.9H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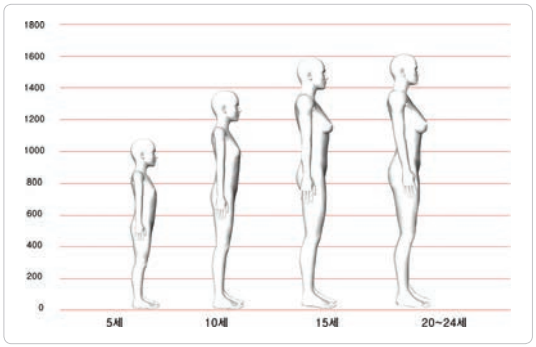
키

바닥면에서 머리마루점까지의 수직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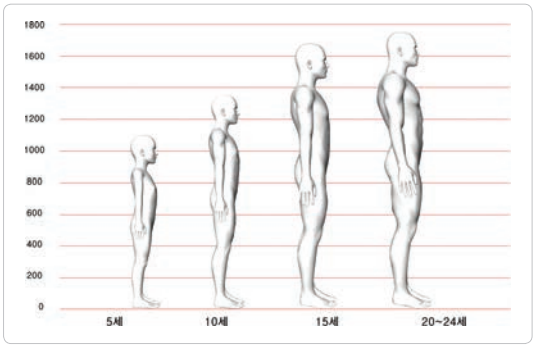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한 손으로 수직자를 잡아 피측정자의 뒤쪽에 놓고 바닥면에서 머리마루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잰다.
▶ 신장의 길이는 양손을 펼친 상태에서 손가락 양끝 사이의 거리와 거의 같다.
▶ 성인남자 중에서는 영국인이 약 178cm로 가장 크고, 말레이시아인은 약 154cm로 작은 편에 속한다. 성인여자 중에는 미국인이 약 162cm로 가장 크다.

연령대별 여성의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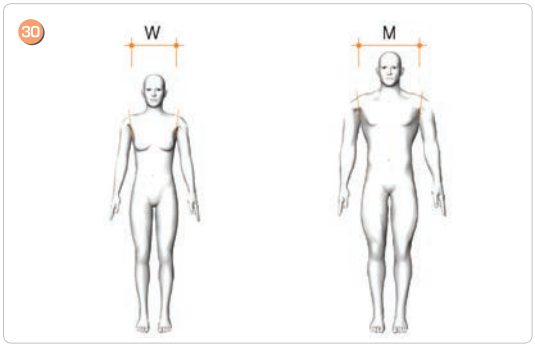
27. W:1,304mm, M:1,410mm 28. W:1,491mm, M:1,619mm 29. W:1,604mm, M:1,735mm

연령대별 남성의 키



가슴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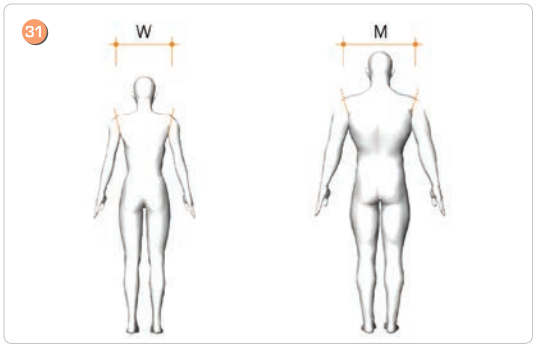
복장뼈 가운데점 수준에서의 수평거리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큰 수평자를 피측정자의 오른쪽과 왼쪽의 복장뼈가운데점 수준의 옆면골격에 깊이 들어가게 한 후 피측정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한 후 눈금을 읽는다.

어깨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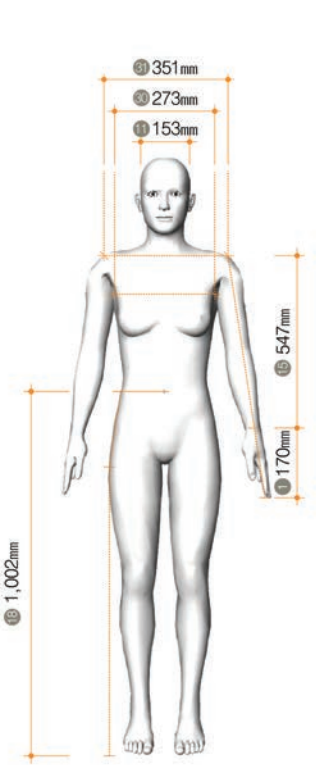
오른쪽과 왼쪽 어깨점 사이의 수평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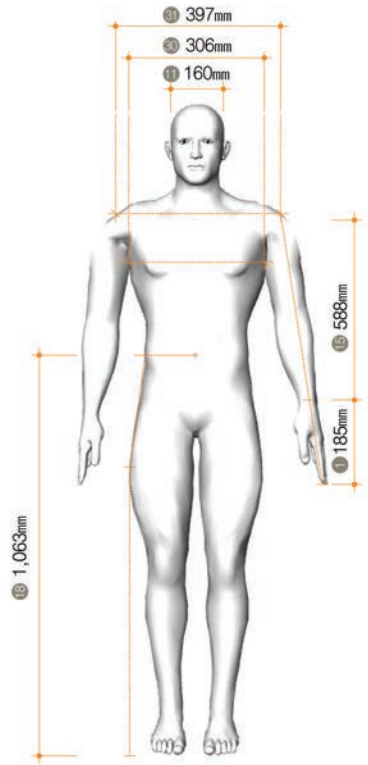


▶ 측정방법 :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뒤에서 고정된 가로자를 왼쪽 어깨점에 대고 움직이는 가로자를 오른쪽 어깨점에 닿도록 조절하여 수평거리를 잰다.
▶ 신장을 H로 하면 어깨너비는 약 0.25H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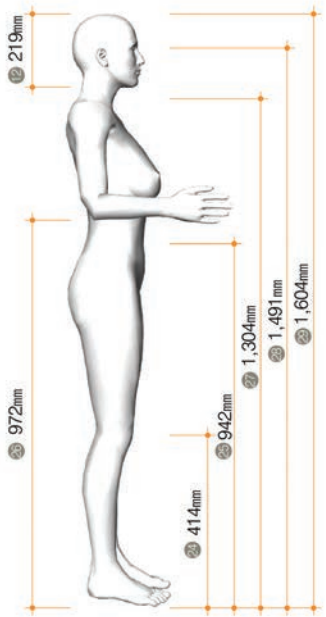
30. W:273mm, 306mm **31.** W:351mm, M:3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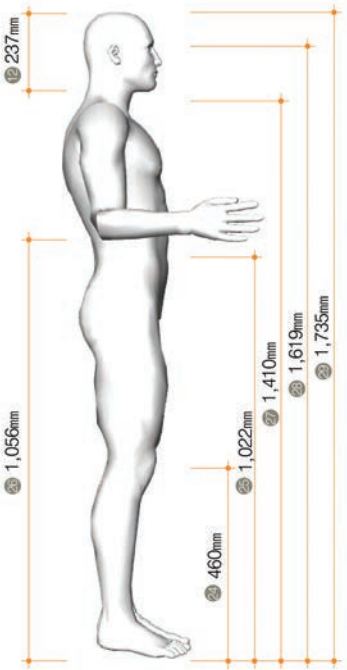
Summary


31 351mm
30 273mm
11 153mm
15 547mm
1 170mm
16 1,00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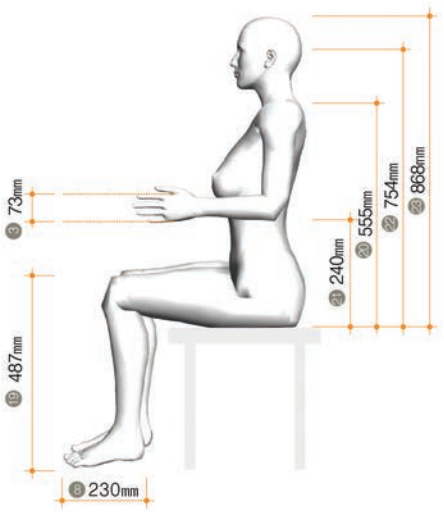

31 397mm
30 306mm
11 160mm
15 588mm
1 185mm
16 1,06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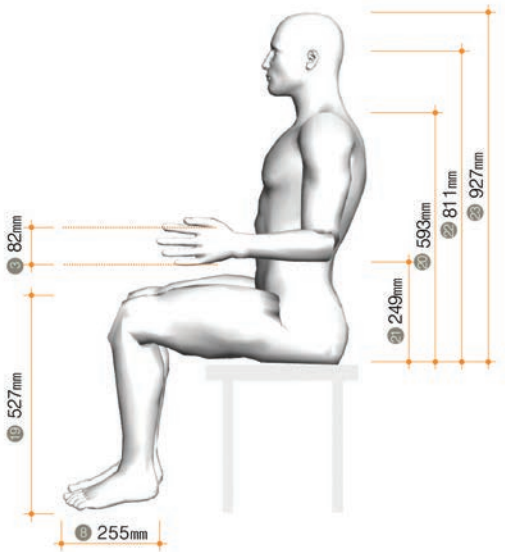
Summary


219mm
972mm
414mm
942mm
1,304mm
1,491mm
1,60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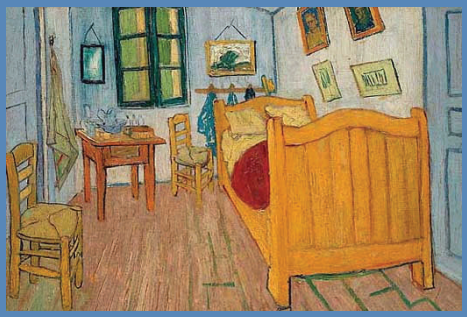

237mm
1,056mm
460mm
1,022mm
1,410mm
1,619mm
1,735mm

Summary


9 73mm
19 487mm
8 230mm
21 240mm
20 555mm
22 754mm
23 868mm


9 82mm
19 527mm
8 255mm
21 249mm
20 593mm
22 811mm
23 927mm

생활



고흐의 방

- 클립
- 건전지
- 지우개
- 종이컵
- 전구
- 아이폰
- 콘센트
- CD
- 지폐
- 연필
- 책
- 달력
- 티슈곽
- 공
- 나무젓가락
- 아이패드
- A4 용지
- 생수병
- 아이맥
- 우산

클립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종이클립의 크기와 디자인은 일정한 편으로, 여성의 둘째 손가락의 절반 정도의 길이이다. 종이클립은 1899년 노르웨이의 요한 발러(Johan Vaaler)가 발명하였고, 처음에는 사각형 모양이었다. 1901년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하고 현재 우리가 쓰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클립이 대량생산되었다.

건전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전지 크기는 AA, AAA 두 가지인데, AA건전지는 백열전구 길이의 절반이다. 건전지의 크기는 AAA(가장작은 사이즈), AA, C, D가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미국의 건전지 구분 단위다. 건전지의 크기 구분은 국제표준, 미국식, 그리고 일본식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국제 기준단위를 따르지만 실생활에서는 미국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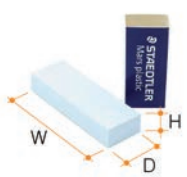
지우개

1722년 영국의 화학자 J.프리스틀리가 고무의 연필 소자성이 뛰어남을 발견한 이래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우개의 크기와 모양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이며 흰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 또는 제도용 지우개로 톰보우 지우개(일본산)와, 스테들러 지우개(독일산)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두 지우개의 높이는 같다.

1

2

3



4

1. W:33mm **2.** H_1:50mm, H_2:45mm **3.** D:22mm, W:63mm, H:11mm **4.** D:65mm W:27mm H:11mm

종이컵

종이컵은 1907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휴그 무어가 발명했다. 휴그 무어는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컵의 재료를 찾다가 '태블릿' 종이가 물어 젖어도 녹거나 훼손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태블릿 종이를 컵 모양으로 만들었다.

▶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비되는 1회용 종이컵은 150억 개 이상이다.(30cm이상 자란나무 1500만 그루 분량) 종이컵 1개의 무게는 5g 가량이다.

전구

1879년 10월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이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40시간 이상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전구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에디슨과 영국의 스완에 의하여 실용화되었다. 현재 백열등의 수명은 약 1,000시간 정도이며, 출력(전력)은 다양하다. 앞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백열전구는 점차 LED전구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애플사에서 개발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말한다. 최초의 아이폰은 2007년 1월 9일에 출시되었다. 2013년 7월 현재까지 5세대가 존재하며, 아이폰 OS에 따라 분류된다. 가장 최신모델인 iPhone5의 무게는 112g 으로, iPhone4(137g), iPhone3GS(135g)보다 가볍다.

5

6

7

5. W_1:70mm, W_2:50mm, H:75mm 6. H:100mm, Ø:50mm 7. D:58.6mm W:7.6mm H:123.8mm

콘센트

배선 기구의 종류 중 하나이며, 전기 · 전자 기기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배선기구이다. 콘센트는 벽이나 기둥 속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매립형 콘센트와 벽이나 기둥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노출형 콘센트가 있다. 콘센트라는 말은 일본에서 “concentric plug”를 “concent”라고 줄여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electric) socket 혹은 (electric) outlet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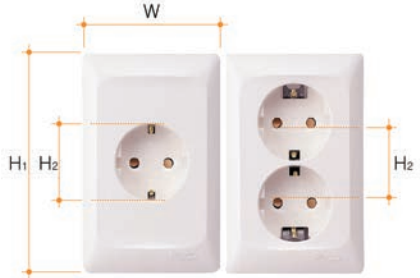
CD

CD(Compact Disc)는 음악, 데이터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광디스크를 말한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 2,000억 장이 넘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USB메모리나 메모리카드 등 성능이 뛰어난 다른 저장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판매량이 줄고 있는 추세다. 지금은 주로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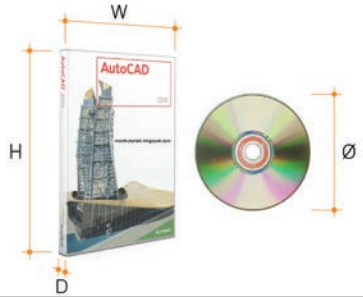
지폐

우리나라 지폐의 수명은 천원권 40개월, 오천원권 65개월, 만원권 100개월로 추정된다. 화폐 속의 인물 및 그림을 보면, 천원권은 퇴계 이황과 계상정거도, 오천원권은 율곡 이이, 초충도, 만원권은 세종대왕, 혼천의, 오만원권은 신사임당과 월매도가 들어가 있다. 4가지 지폐의 세로길이(좁은 변)는 모두 같으며, 지폐의 액수가 커질수록 가로길이 (넓은 변)는 6mm씩 증가한다. 지폐의 재질은 종이가 아닌 면이다.

8



9



10

8. W:74mm, H_1:120mm, H_2:42mm 9. D:14mm, W:136mm, H:191mm, Ø:120mm
10. H:68mm, W_1:154mm, W_2:148mm, W_3:142mm, W_4:136mm

연필

1564년 영국에서 흑연이 발견되고 2년 뒤에 이것을 나뭇조각 사이에 끼워 쓰기 시작한 것이 흑연 연필의 시초이다. 그리고 1795년에 프랑스의 콩테(Conte,N. J.)가 흑연과 진흙으로 만든 심을 고온에서 굽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실용화하였다. 연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이며 1946년 대전에서 국산 연필이 처음 생산되었다. 연필심의 굵기는 8mm가 기준이고 길이는 172mm를 표준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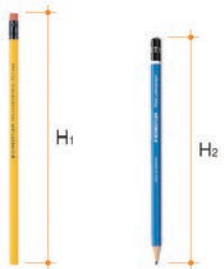
책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형은 '국판(152x218mm)'으로, 1962년부터 한국공업규격(KSA5201)에 따라 A전지(625×880mm)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근래에는 'A6판(148×210mm)'을 주로 사용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국판의 '국'인데, 국악이나 국학처럼 나라 國이 아니라 국화菊을 쓴다. 그 이유는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한 종이를 판매할 때, 수입상의 상표가 국화와 닮은 달리아 꽃이었고, 이 종이가 신문에 쓰이고 있고 신문의 문(聞)의 'kiku'국화로 훈독하였으며, 국화는 황실의 문양인 점들을 이유로 국화를 상표로 하고 '국인쇄종이'로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점점 이 종이가 유행하면서 '국판'으로 줄여서 통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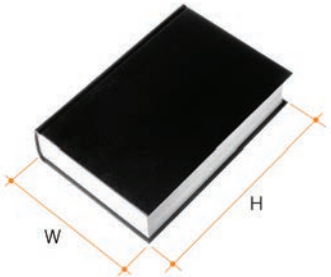
달력

책력은 1년의 시령과 그 날짜를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흔히 달력이라고 한다. 시령은 흔히 절기라고도 부르며, 세시와 요일, 일식, 행사일 등을 아울러 이른다. 또한 책력은 한 달 또는 두 달을 한 장에 나타내는 달력이 주를 이루나, 한 장에 하루씩 나타내는 일력도 있고, 한 장에 일주일을 엮은 주력도 있으나, 보통 그것들도 달력이라 부른다.

11



12



13

11. H_1:190mm, H_2:175mm **12.** W:148mm, H:210mm **13.** W:230mm, D:75mm, H:194mm

티슈곽

1924년 킴벌리–클라크사는 크리넥스라는 상표명으로 최초의 얼굴용 티슈를 출시하였는데 초기 크리넥스는 얼굴 화장 크림과 기타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도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에 구멍이 있어 쉽게 휴지를 뽑을 수 있는 상자는 1928년에 도입되었으며, 곧이어 색상과 문양이 인쇄된 티슈가 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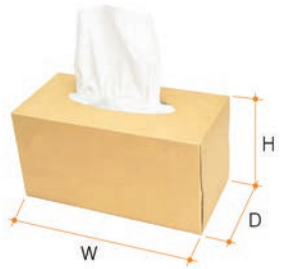
공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공을 멀리 날아가는 골프공은 최고 320m 까지 날아간다. 골프공의 최대 무게는 45.93g인데, 이것은 계란의 무게(40~50g)와 비슷하다. 골프 홀의 지름이 108mm인데, 야구공의 실밥 수는 108개다. 축구공은 검정색 정오각형 12조각, 흰색 정육각형 20조각으로 이루어진 정이십면체다. K리그 공인구와 KBL 공인구를 비교하면,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조금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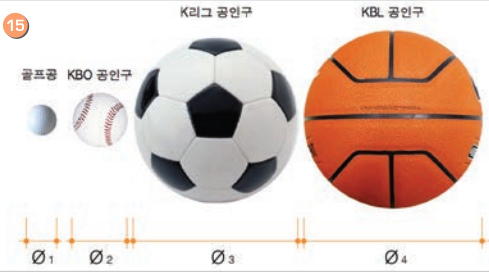
나무젓가락

젓가락을 처음 사용한 나라는 중국이며,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쇠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였다. 한, 중, 일 세 나라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세계 인구 15억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나무젓가락의 길이를 말할 때는 '치'라는 길이단위를 사용하는데, 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로 약 3.03cm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나무젓가락의 크기는 7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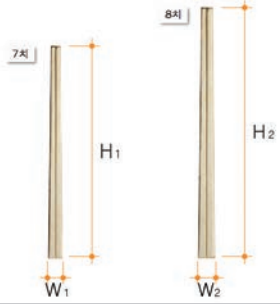
14



15



16



14. D:115mm, W:235mm, H:110mm 15. Ø1:42.67mm, Ø2:72.3mm, Ø3:220mm, Ø4:240mm
16. W1:12mm, H1:205mm, W2:15mm, H2:240mm

아이패드

애플사에서 2010년 4월에 출시한 태블릿컴퓨터로 책, 영화, 음악, 게임, 정기 간행물, 웹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시청각 매체의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는다. 아이패드는 2013년 7월 현재 아이패드2를 거쳐 뉴 아이패드를 출시하여 총 세 가지 세대가 존재한다. 뉴 아이패드의 길이는 나무젓가락 8치짜리와 거의 비슷하여, 아이폰과 두께가 거의 비슷하다.

A4 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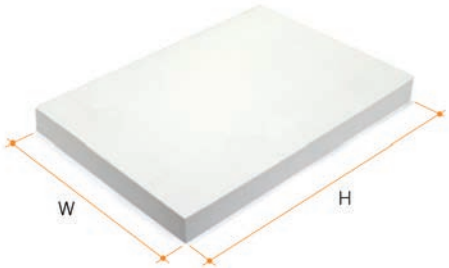
ISO 216은 국제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종이크기 표준으로, A, B, C 세 가지의 계열이 있는데 A4용지는 A계열에 속한다. A4 용지는 $1:\sqrt{2}$ 비율의 크기로 정의되어 있다. A계열의 전지인 A0는 넓이가 $1m^2$이며, A1, A2, A3, A4 등의 종이 크기는 각각 그 이전 크기의 종이를 짧은 변에 평행하도록 이등분하여 자른 것이다. 따라서 A계열 종이를 반으로 접거나 자르면 보다 작은 크기의 A계열 종이가 된다.

생수병

생수병은 주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흔히 PET라고 불리는 원료로 만들어진 병으로, 현재 이 페트병은 저렴함과 내구성으로 유리병보다 더욱 인기 있는 품목이다. 페트병은 용해된 플라스틱을 원하는 용량의 금형에 붓고 압축공기를 불어넣는 블로성형(blow molding)으로 주로 제작된다.

17

18



19

17. D:9.4mm, W:185.7mm, H:241.2mm 18. W:210mm, H:297mm 19. H_1:330mm, H_2:190mm

아이맥

1998년 5월 처음 제품의 개요가 소개되고, 같은 해 8월 출시된 아이맥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퍼스널 컴퓨터의 외부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출시된 아이맥 모델은 모든 부품이 화면패널 뒤에 위치하여 매우 단순한 일체형 디자인을 나타내게 되었다.

20

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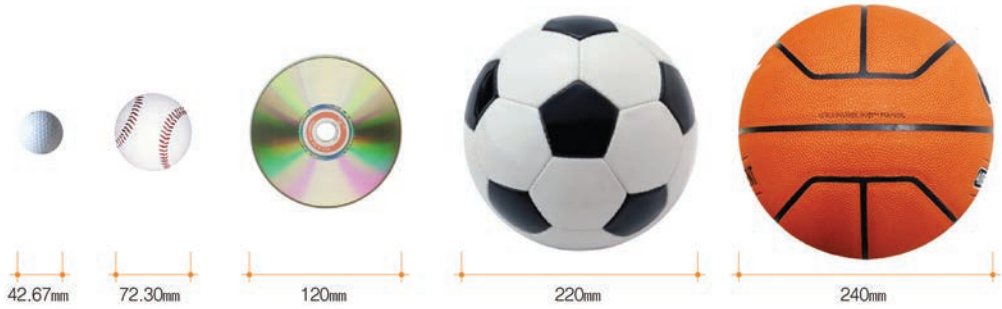
70-8k 우산이라는 것은 우산의 살대가 8개이고 우산살대의 길이가 70cm임을 나타낸다. 살대의 종류는 47x8k, 50x8k, 53x8k, 55x8k, 58x8k, 63x8k, 70x8k 등이 있다. 47x8k, 50x8k는 양산에 많이 사용되며, 53x8k, 55x8k는 3단 미니우산, 58x8k, 63x8k는 2단 우산, 70x8k는 장우산에 많이 사용된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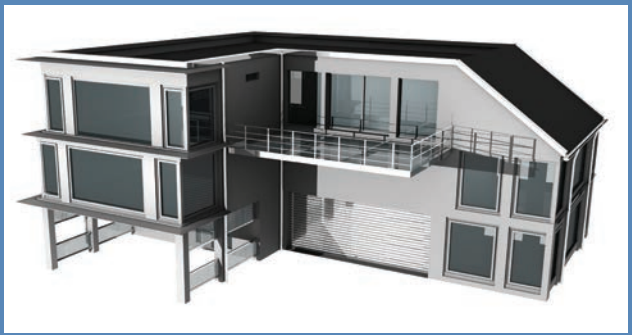
20. W:528mm, H:451mm **21.** H_1:700mm, H_2:950mm, Ø:1,220mm

Summary

330mm
297mm
241.2mm
240mm
210mm
190mm
175mm
154mm
148mm
142mm
136mm
123.8mm
120mm
100mm
75mm
65mm
50mm
45mm
33mm
디엠지


42.67mm
72.30mm
120mm
220mm
240mm

주택



- 피난구 유도등
- 벽돌
- 우편함
- TV
- 의자
- 책상
- 싱크대
- 발코니 난간
- 옥내 소화전
- 음식물 수거함
- 냉장고
- 방문
- 엘리베이터
- 실내천정높이

피난구 유도등

“피난유도등”이라 함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현재 피난구 유도등에 사용되는 픽토그램은 일본에서 공모를 통해 뽑은 작품을 디자이너 오다 유키오(1939년생)가 수정하여 만든 것을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채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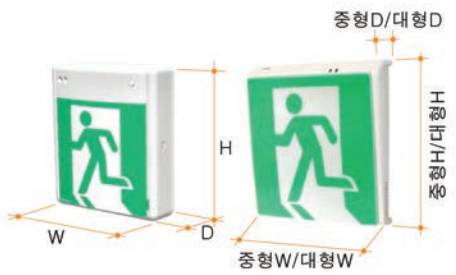
벽돌

벽돌은 점토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으로 구운 건축 재료로서 점토를 성형 · 건조 · 소성하여 제조한다. 흙, 불, 물, 공기 4개 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본격적인 구조재료이다. 벽돌의 종류는 용도 및 성질에 따라 보통 벽돌, 특수 벽돌(내화벽돌, 포장벽돌, 경량벽돌)로 나눌 수 있고 재료나 소성조건 및 용도에 따라 보통벽돌, 규회벽돌, 내화벽돌, 내화단열벽돌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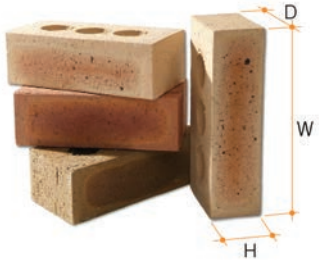
우편함

우편함의 구조 및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 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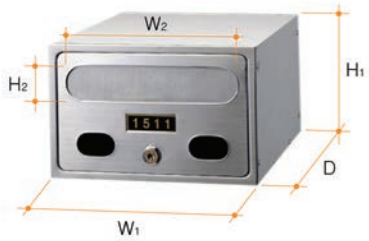
1



2



3



1. D:50mm, W:157mm, H:179mm, 중형D:59mm/D:대형 77mm, 중형W:220mm/대형W:276mm, 중형H:240mm/대형H:288mm
2. D:90mm, W:190mm, H:57mm 3. D:160mm이상, W_1:250mm이상, W_2:230mm이상, H_1:160mm이상, H_2:45mm/50mm

TV

tele는 그리스어로 '멀리' , vision은 라틴어로 '본다'는 뜻이다. 1931년 미국에서 첫 시험방송이 시작되었고, 1937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이 세계 최초로 흑백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였다. 한국은 1956년 5월 12일 세계에서 15번째로 TV전파를 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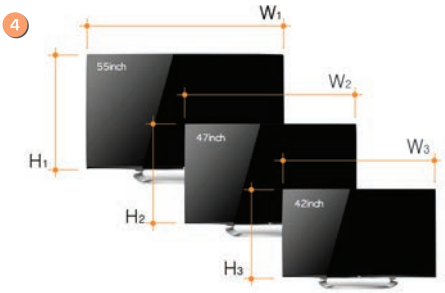
의자

사무용 의자의 높이는 최소 420mm이상 이고, 표준 신장 165를 기준으로 한 학생용 의자(5호)의 최소 높이도 420mm이다. 바람직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땅에 완전히 닿는 높이여야 하며 의자의 깊이는 뒤로 완전히 물러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고 등받이 높이는 주걱뼈(scapula) 하단에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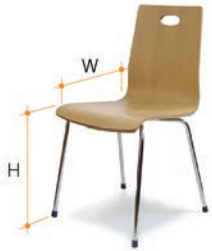
책상

책상의 높이는 앉은 좌면에서 여자는 280mm, 남자는 300mm 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테이블들의 높이는 대략 680~750mm이다. 그중에서도 책상 종류의 높이는 보통 720mm로, 일반적인 PC 테이블 및 패밀리 테이블 종류의 높이(700mm)보다 조금 높다.

4



5



6

4. W_1:1,222mm, H_1:707mm, W_2:1,052mm, H_2:611mm, W_3:953mm, H_3:566mm 5. W:420mm, H:420mm
6. H_1:730mm, H_2:720mm

싱크대

싱크대의 높이는 작업자의 신장/2+5cm가 적당하다. 싱크대의 가로 길이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높이는 800mm, 850mm, 900mm 세 가지가 일반적이다. 또한, 하부수납장의 가스대 몸체 길이는 별도의 위판으로 구성 시 600mm, 700mm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개수대의 경우 정해진 치수는 없지만, 보통 300mm, 600mm, 900mm 등의 종류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

발코니 난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 등의 구조)1항에 따르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c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설비는 방화대상물의 층마다 호스 접속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5m 이내에 대상물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설치하고, 소화전 함의 표면에 그 취지를 표시하고,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표시등을 설치한다. 옥내소화전 함의 길이는 발코니 난간의 최소 높이와 일치한다.

7

8

9

7. 가열대너비:600mm, 개수대너비:900mm, 싱크대높이:850mm~900mm 8. 난간살간격:100mm이하, 난간높이:1,200mm이상
9. D:200mm, W:650mm, H:1,200mm

음식물 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5리터에서부터 120리터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으며, 5리터, 10리터, 20리터 용량의 수거용기는 단독주택 또는 작은 업소에서 사용하고, 규모가 큰 업소 또는 공동주택지에서는 40리터, 120리터 용량의 수거함을 사용한다. 120리터 용기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냉장고

냉장고는 수용하는 용적이 수십 리터에서 수백 리터인 가정용 냉장고에서 수십 킬로리터인 업무용 냉장고까지 있다. 전기냉장고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다. 2013년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900리터 용량의 냉장고를 선보인데 이어, LG전자에서 910리터 냉장고를 출시하였다. 냉장고는 자동차와 더불어 대형쇼핑몰, 스프롤현상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방문

국내에서 표준규격으로 생산되는 방문의 틀은 1,000x2,100mm(현관문, 주 출입문, 안방 문), 900x2,100mm(일반 방문), 800x2,000mm(욕실 문이나 창고 문, 높이를 통일하기 위해 800x2,100mm도 쓰임) 정도이다. 방문의 규격은 집안에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고려하여 900x2,100mm 사이즈가 가장 많이 쓰인다.

10 120리터 형

11 900리터 형

12

10. D:485mm, W:550mm, H:950mm 11. D:939mm, W:908mm, H:1,850mm
12. W_1:940mm, W_2:840mm, W_3:740mm, H_1:2,040mm, H_2:900mm, H_3:1,940mm

엘리베이터

국내 승강기 제작업체의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표준 규격표에 따르면, 정원에 따라 7, 8, 9, 10, 11, 13, 15, 17, 20, 24인승으로 구분하고 출입구의 너비는 800mm, 900mm, 1,000mm, 1,100mm 4종류가 있다. 또한 출입구의 높이는 모두 동일하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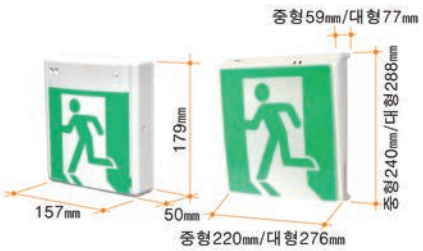
실내천정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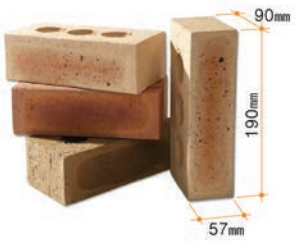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그 높이를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00mm~2,500mm 사이가 대략 많이 쓰이는 높이이나,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의 경우 2,700mm이상으로 높게 짓는 경우가 많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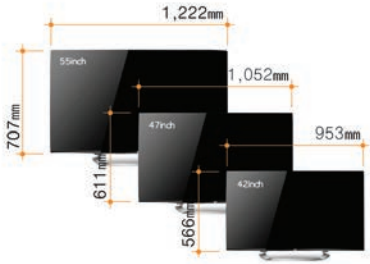
13. W:800/900/1,000/1,100mm, H:2,100mm **14.** CH:2,700mm

Summary


중형59㎜/대형77㎜
179㎜
157㎜
50㎜
중형240㎜/대형288㎜
중형220㎜/대형276㎜


90㎜
190㎜
57㎜

160㎜
120
~320㎜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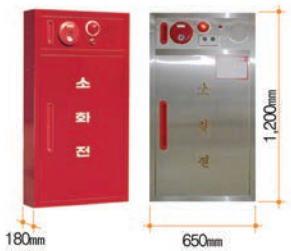

1,222㎜
55inch
1,052㎜
47inch
953㎜
42inch
707㎜
611㎜
566㎜

420㎜
420㎜

학원용 책상
사무용 책상
730㎜
740㎜

850~900㎜
600㎜
900㎜

1,200㎜ 이상
EA 100㎜ 이하


소
화
전
1,200㎜
180㎜
650㎜

Summary

120 리터 형
550mm
485mm
950mm

900L 형
1,850mm
939mm
908mm

2,100mm
800/900/1,000/1,100mm

2,040mm
900mm
1,940mm
940mm
840mm
740mm
740mm

CH = 2,700mm

Chapter 2

Street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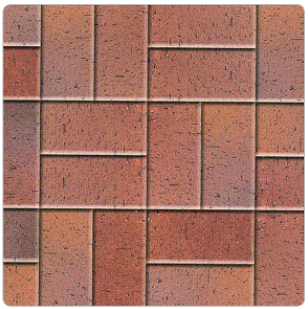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걷거나 차를 타고 지나는 길, 그 옆에 있는 크고 작은 건축물들, 그리고 길과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공간에 대한 척도에 대해 익히고자 한다. 집에서 나와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척도를 아는 것은 설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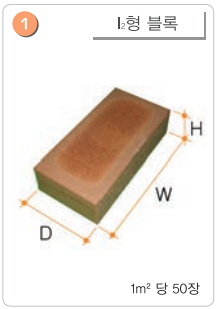
보행자 도로

- 보도 블록
- 점자 블록
- 옥외 소화전
- 볼라드
- 연석
- 맨홀 뚜껑
- 보행자용 펜스
- 휴지통
- 우체통
- 가로 화분대
- 벤치
- 보행자 안내
- 공중전화 부스
- 가로 판매대
- 자전거 보관대
- 버스 쉘터
- 파고라
- 지하철 입구
- 건축선 후퇴

보도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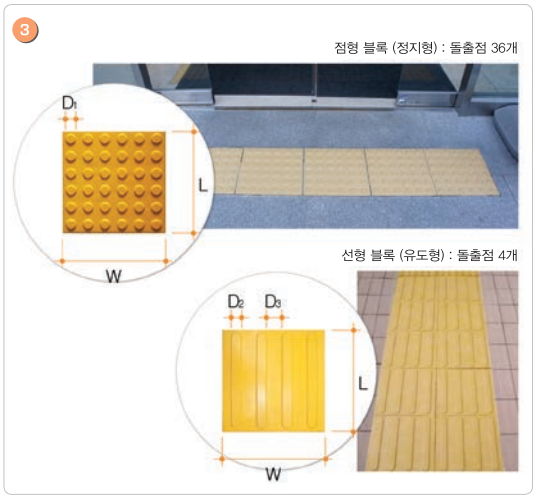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도블록은 직사각형 모양의 I_2형 블록과, 직사각형 형태에 지그재그로 톱니모양으로 생긴 U형 블록이 있다. I_2형 블록은 안전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형상 및 컬러 패턴으로 미관이 뛰어나다. U형 블록은 조립방법에 따라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고, 블록 간에 견고한 조립력으로 하중분산 효과가 높으며 불균등한 장소에서도 포장이 용이하다.





점자블록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면에 돌기를 양각한 블록이다. 점자블록은 용도에 따라 점형과 선형으로 분류된다. 점형 블록은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을 둘러막는 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선형 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1. D:10cm, W:20cm, H:6cm, 2. D:11cm, W:22cm, H:6cm
3. W:30cm, L:30cm, D_1:3cm, D_2:3.5cm, D_3:4cm

옥외 소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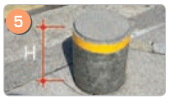
옥외 소화전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으로 지상용과 지하용으로 구분한다. 지상용 옥외 소화전은 A형, B형, C형, D형 네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토출구의 수는 1~4개까지 있다. 네 종류의 소화전 모두 최소높이는 600mm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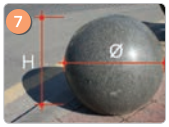
볼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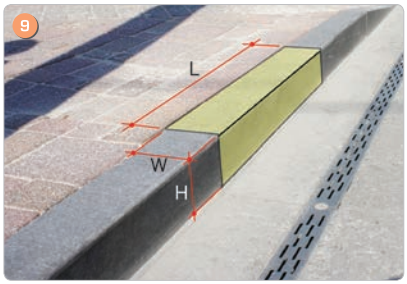
볼라드는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또는 계선주라고도 한다. 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로서 보통 철이나 콘크리트로 된 기둥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내외,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연석

연석은 보행의 안전, 노면배수, 시선유도, 도로용지의 경계, 유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 식수대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연석은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고 차도를 이탈한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화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 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H:83cm 5. H:20cm 6. H:50cm, Ø:30cm 7. H:50cm, Ø:55cm 8. H:75cm, Ø:13cm 9. L:100cm, W:15cm, H:15cm

맨홀 뚜껑

맨홀은 상수관이나 하수관이 꺾이는 곳이나 굵기가 다른 관이 연결된 곳에 설치하는 시설로, 필요할 때 사람이 들어가 수리하도록 만든 공간이다. 맨홀 뚜껑은 우수 및 오수용, 상수도용, 하수도용, 전기 · 통신용(원형, 사각)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규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상 · 하수도 · 전기 ·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KS D 6021]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용 펜스

일반적인 펜스의 너비는 900, 1,200, 1,500, 1,800, 2,000, 2,500, 3,000, 3,500mm이고, 높이는 800, 900, 1,000, 1,200, 1,500, 1,800, 2,000, 2,500, 3,000, 3,500mm이다. 이중에서도 보행자용 펜스는 주로 2,000(너비) x 1,000(높이)mm가 많이 사용된다.

10. Ø:64.8cm **11.** Ø:64.8cm, 76.6cm **12.** Ø:76.6cm **13.** Ø:76.6cm, 91.8cm, 110.8cm **14.** W:112cm, L:62cm
15. W:200cm, H:100cm

휴지통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가로변 휴지통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94년 말 8,296개에 달했던 시내 가로 휴지통이 98년 말에는 3,958개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도시미관이 향상되기 보다는 길가 곳곳이 쓰레기로 불쾌함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쓰레기통을 4,875개까지 늘렸는데 쓰레기통 수는 다시 줄어 2012년 5월에는 4,700여개의 쓰레기통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12년 6월 10일 박원순 시장이 담당부서에 거리 쓰레기통 확충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다시 바뀔 전망이다.

16

우체통

대한민국의 우체통은 1884년에 우정총국이 출범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1900년대 전후의 한국의 우체통은 목조의 사각함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에 현재와 같은 적색의 원형 우체통이 보급되었다. 1993년에는 대한민국에 5만 7천여 개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는 갑호(입식) 우체통이 16,297개, 을호(벽걸이식) 우체통이 4,786개로 총 21,083개의 우체통이 있다.

17 갑 2호

18 을 2호

19 갑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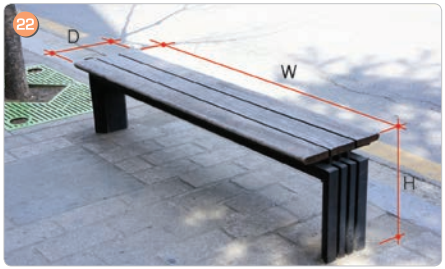
16. D:50cm, W:50cm, H:100cm, h:7cm 17. W:44.8cm, D:40cm, H:126cm 18. W:36.6cm, D:26cm, H:555cm
19. W:59cm, D:42cm, H:126cm

가로 화분대

가로화분대의 색채는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은 지양하고 단일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과장된 패턴이나 문자의 남용을 지양하며, 물 공급과 배수가 고려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연물을 모방한 형상 및 패턴의 사용은 지양한다. 재질은 플라스틱 등 인공 재료는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목재 사용 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벤치나 볼라드, 가로수 보호 덮개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이 바람직하다.

벤치

표준 벤치의 길이는 1,500, 2,000mm이고, 너비는 400~500mm이다. 또한 바닥면에서 좌면 앞부분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수직거리는 380~410mm이다. 하지만 거리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벤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벤치의 구조(등받이 각도, 앉음 판 높이 등) 결정 시〈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참조를 권장하고 있다.



20. H:45cm, Ø:90cm **21.** L:90cm, W:80cm, H:58cm **22.** D:38cm, W:190cm, H:40cm
23. W:166cm, H:70cm, d:55cm, h:40cm **24.** W:230cm, H:45cm, h:40cm **25.** W:183cm, H:80cm, h:40cm, d:40cm

보행자 안내

보행자 안내 표지 및 보행 방향 표지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를 결정하고, 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안내 이외의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 표지 및 버스 노선 안내도에는 동일 구간 왕복 표시를 금지하고 지하철역, 관광지, 관공서, 주요 환승 가능 정류장 표기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도록 되어있다.

공중전화 부스

1889년 미국 발명가 윌리엄 그레이가 동전으로 작동하는 공중전화를 최초로 고안하였다. 초기의 전화 부스는 종종 내부에 카펫이 깔리고 마호가니와 같은 목재로 호화롭게 제작되었다. 1926년 길레스 길버트 스콧 경은 영국 런던의 빨간색 공중전화부스를 디자인하였으며, 이 디자인은 런던의 전통적 특징이 되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발달로 인해 공중전화 부스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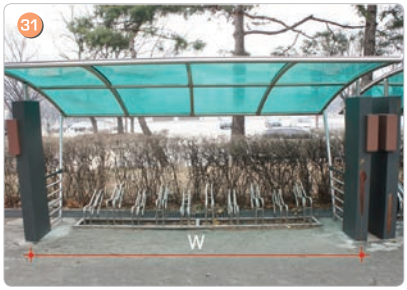
26. W:40cm, H:270cm **27.** W:50cm, H:220cm **28.** W:150cm, H:350cm **29.** D:94.5cm, W:94.5cm, H:223cm

가로 판매대

서울시의 표준형 가로 판매대는 2007년 8월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2008년 3월 최종적으로 A~D 등 4가지 타입이 확정되었으며, 2008년 7월 30일 시청사 주변에서 첫 선을 보였다. 가로 판매대의 이름인 'S-Shop'은 Seoul(서울), Small(작다), Soft(부드럽다), Street Shop(가판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로 판매대는 서울시의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형태, 색채, 부착물 등도 〈표준형 디자인〉 개발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의 페인트 도색 시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을 지양하고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도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야를 막는 비가림 시설(자전거 보관대 캐노피) 등의 설치는 피하고,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 및 주변 불빛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



30. D:140cm, W:280cm, H:270cm **31.** W:400cm **32.** H_1:200cm, H_2:150cm

버스 쉘터

서울시의 표준형 버스쉘터 디자인은 3가지 타입이 있다. A타입은 기역자형 가로변 버스승차대로 독립형으로 설치하고 보도폭이 확보되고 승객이 많지 않은 곳에 설치 시 유리하다. B타입은 승차대 양면 개방타입으로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며 대규모 인원이 많은 곳에 설치 시 유리하며 규격은 A타입과 같다. C타입은 보도가 복잡하여 승차대 설치가 어렵거나 버스이용객이 적은 지역에 설치 시 유리하다.

파고라

'파고라[Pergola]'는 외래어로 마당이나 평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얽어 세워서 등나무, 포도나무 같은 덩굴성 식물을 올리도록 만든 시설이다.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공개공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등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이다.

33. D:210cm, W:794cm, H:268cm 34. L:330cm, W:550cm, H:240cm

지하철 입구

서울시 표준형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는 형태에 따라 와선지붕과 평지붕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며, 형식에 따라 차폐형, 개방형, 독립형, 프레임형 등 4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표준형 보도용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는 길이 15m±, 폭 4m±, 높이 3m±의 규격계획(개념상)을 기준으로, 일정한 등분과 비례를 일관되게 평입면 전체에 적용하여 규격화된 계획을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의 상황에 의한 변동폭은 길이 · 폭 · 높이 전체규격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건축선 후퇴

필요한 공개공지, 보도폭, 시거(視距) 등의 확보, 시선유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물, 광고건축물 등을 일정거리 이상 도로변 등으로부터 후퇴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동예술극장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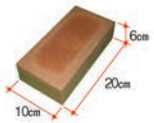
명동 MPlaza 앞

35. W:400cm±, L:1,500cm±, H:300cm± 36. L:1,150cm 37. L:300cm, H:380cm

Summary

Section 01 | 보행자 도로

I₂형 블록
1㎡ 당 5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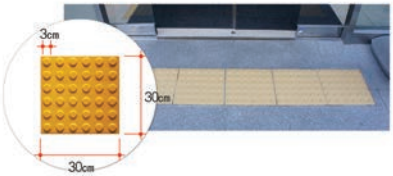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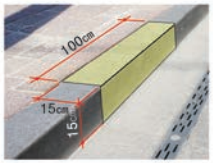
U형 블록
1㎡ 당 39장

우수, 오수

상수도용

점형 블록 (정지형) : 돌출점 3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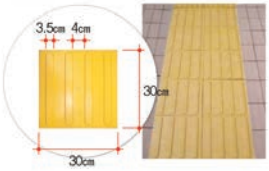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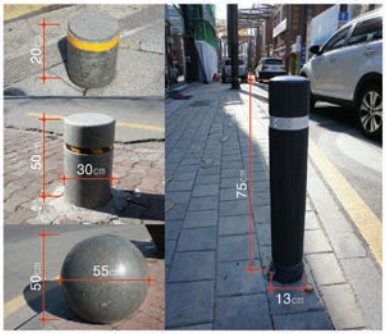
하수도용

전기, 통신용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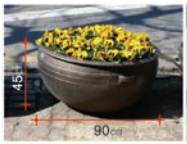
전기, 통신용 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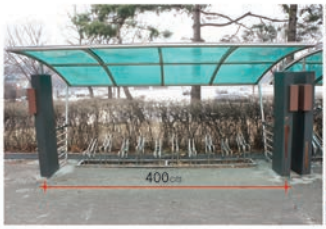
선형 블록 (유도형) : 돌출점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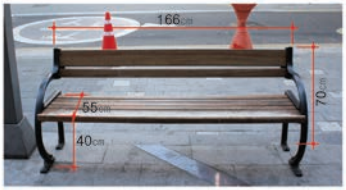




Summary







H : 270cm / W : 40cm

H : 250cm / W : 100cm

H : 270cm / W : 40cm

H : 250cm / W : 100cm

Summary

명동예술극장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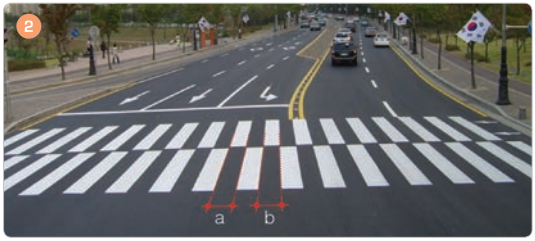
명동 MPlaza 앞

자동차 도로

- 횡단보도
- 과속방지턱
- 방호울타리
- 라바콘
- 바리케이트
- 시선유도봉
- 도로반사경
- 교통신호제어기
- 안전유도로봇
- 도로표지
- 신호등
- 가로등
- 차
- 주차장
- 방음벽
- 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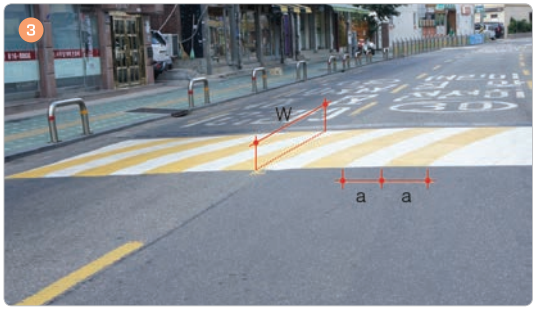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부분으로,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곡선부, 오르막 및 내리막 경사 구간,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횡단보도의 폭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최소 4.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과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



1. W_1:4m이상, W_2:90~100cm 2. a:45~50cm, b:a x 1.5 3. W:360/200cm, a:45~50cm,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는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하나로,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방호울타리의 바람직한 설치 최소 연장은 100m이고, 부득이 설치 연장을 줄이는 경우 적어도 60m가 되어야 한다.

라바콘

라바콘은 건설 현장의 위험한 장소의 표시나 도로 공사 시 차량의 유도 등에 사용되는 안전 표지물이다. 라바콘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하며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도로표면에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해 바닥을 무겁게 하거나 라바콘에 모래주머니를 부착하여 설치한다. 차로변경 구간에는 도류화 시설물로 설치하는데 경우에 따라 상단에 소형 전구를 설치할 수 있다.

라바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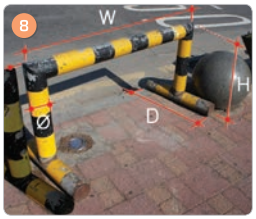
헤비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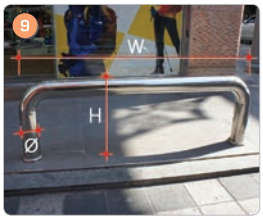
슈퍼 헤비콘

4. W:400cm, H:75cm **5.** D:38cm, H:70cm **6.** D:40cm, H:75cm 7. D:45cm, H:100cm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해 놓은 노상의 장애물이다. 어원상으로는 시가전이나 시가지에서의 폭동 시에, 적군이나 폭도가 일정지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통로상에 목재 · 수레 · 자동차 · 모래주머니 등으로 장애물을 구축한 것을 가리킨다.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시선유도봉은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격흡수시설 등과 함께 설치되기도 하고, 교각 및 교대 주위에서의 차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8. D:72cm, W:150cm, H:73cm, Ø:10cm **9.** W:150cm, H:47cm, Ø:10cm **10.** D:40cm, W:150cm, H:90cm
11. H:45cm **12.** H:75cm

도로반사경

도로반사경이란 도로의 곡선부나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필요한 시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필요한 시거가 40m 미만일 경우, 40m 이상 60m 이하일 경우, 60m 초과일 경우에 따라 각각 표준 곡률반경은 1,500/2,200mm, 3,000mm, 3,600mm 이상이다.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제어기 외함은 19" EIA 규격(표준형의 경우) 또는 기타 크기의 서브 랙(Sub-rack)과 단자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 수용될 수 있는 크기로 높이×폭×깊이가 1,250×600×500mm이내의 내환경성으로 제작된 함체이어야 한다. 외함은 크기에 따라 기본형과 소형으로 구분되며, 소형은 교차로용과 단일로용으로 구분된다. 외함의 크기는 내부구성장치의 설치방법과 수량에 따라 설계한다.

13. Ø:100/80/60cm 14. D:50cm, W:60cm, H:125cm 15. D:35.6cm, W:40.6cm, H:65cm

안전유도로봇

안전유도로봇은 도로의 작업현장이나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공사현장 인근의 운전자에게 미리 위험요소가 있음을 알려 서행 또는 우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안전유도로봇은 안전유도원을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인명피해와 인건비를 절약하며 상시전원 또는 차량의 전원을 이용할 수 있어 날씨와 시간, 장소 등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도로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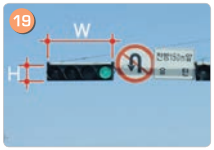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지판을 지주에 부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도로의 중앙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주가 하나인 것을 단주식, 지주가 두 개인 것을 복주식이라 한다. 표지판의 설치 높이는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에 설치할 경우 200cm, 고속국도에 설치할 경우 200~250cm를 원칙으로 한다.

표지판의 설치 높이는 도로의 시설한계와 시공오차, 자재의 구부러짐, 노면의 덧씌우기 등을 고려하여 500c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16. H:193cm 17. H:183cm 18. H:500cm

신호등

과거 교통 신호등 광원으로 사용하던 백열전구는 다른 광원에 비해 연색성이 좋은 반면, 발광 효율이 낮고, 짧은 수명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LED 광원을 교통 신호등에 사용할 경우 동일 광도에서 85% 이상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10배 이상의 긴 수명으로 유지 보수비용 절감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시인성 향상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LED 교통 신호등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가로등

가로등 등주와 가로수의 간격을 보행 가로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등주와 가로수가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한국산업규격(KS D 3600 철재 가로등 주)에서 규정하는 철재 가로등 등주의 종류는 직선형, 암형(암 단면이 4각형인 것), 암형(암 단면이 원형인 것) 등 세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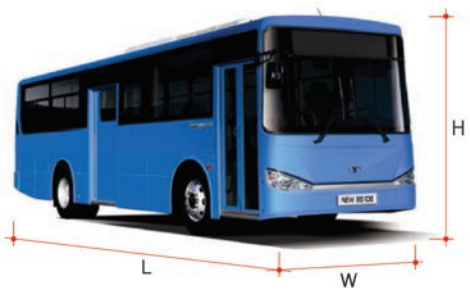
종류	직선형						암 형						
지상높이(m)	5	6	7	8	9	10	7	8	8.5	9	10	11	12
암 길 이(m)	–						1.5 / 1.8 / 2			2 / 2.5 / 2.8			

19. W:142cm, H:35.5cm **20.** W:106.5cm, H:35.5cm **21.** W:35.5cm, H:71cm **22.** W:150~280cm, H:700~1,200cm

차

자동차의 종류에는 문이 4개인 일반적인 세단(Sedan), 문이 2개이고 천장이 낮은 쿠페(Courpe), 천장이 트렁크까지 수평으로 되어있는 왜건(Wagon), 세단 대비 전고와 지상고가 높은 SUV(Sport Utility Vehicle), 천장의 개폐가 가능한 컨버터블(Convertible), 트렁크와 윗 유리가 함께 열리는 해치백(Hatch-back), 앞 열 대비 뒷 열의 공간이 넓은 리무진(Limousine), 뒷 열의 적재공간이 넓은 밴(VAN), 지붕이 없는 적재함이 있는 픽업트럭(Pick-up Truck)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속버스가 시내버스보다 크고 버스의 높이는 SUV 높이의 약 두 배이다.

23 시내(고속)버스



24 VAN

25 SUV

26 승용차

23. L:1,050(1,200)cm, W:249(249)cm, H:320(350)cm 24. L:512.5cm, W:166cm, H:192cm
25. L:468.5cm, W:162cm, H:171.5cm 26. L:482cm, W:158.7cm, H:147cm

주차장

주차장의 형태는 「주차장법」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자주식주차장)과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하며, 자주식주차장은 다시 지하식 · 지평식 또는 건축물식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과 건축물식으로 세분된다.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3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2.5m 이상	5.1m 이상
장애인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27. L:5m 이상, W:2.3m 이상 **28.** L:5m 이상, W:3.3m 이상

방음벽

방음벽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방음특성에 따라 흡음형방음벽 · 반사형방음벽 등으로 구분된다. 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계 시 음원은 무한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음원의 높이는 노면 위 0.5m를 표준으로 한다. 수음점은 보호대상지역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한다. 방음벽의 길이는 방음벽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육교

육교의 색채는 도시경관의 배경이 되도록 저채도, 저명도의 색을 적용하고 문자나 슈퍼그래픽, 장식을 지양하며, 간결한 구조와 형태의 디자인이 좋다. 또한 도시 경관에 부담을 주는 긴 경사로, 나선형 경사로는 지양하며, 육교 아래에 보행자의 머리 보호를 위한 장치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m이므로 육교의 하단부 높이는 그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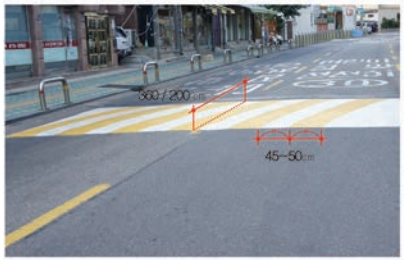
29. H:250cm, W_1:200cm, W_2:100cm **30.** H:4.5m 이상

Summary

라바콘

헤비콘

슈퍼 헤비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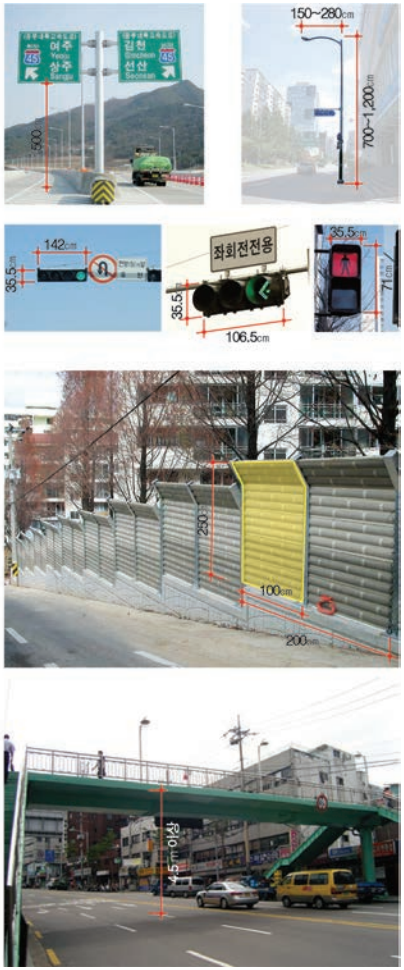


일반차량(직각주차)

장애인차량(직각주차)

Summary

시내(고속)버스
320(350)cm
1,050(1,200)cm
249(249)cm
VAN
512.5cm
192cm
166cm
SUV
468.5cm
171.5cm
162cm
승용차
482cm
147cm
158.7cm


여주
Yeoju
45
삼주
Samju
김천
Gimcheon
45
선산
Seonsan
500cm
150~280cm
700~1,200cm
142cm
35.5cm
좌회전전용
35.5cm
106.5cm
35.5cm
71cm
200cm
100cm
200cm
145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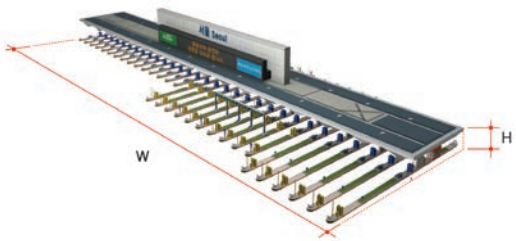
건축물

- 서울요금소
- 독립문
- 범계 초등학교
- 동서울터미널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 판상형 아파트
- 탑상형 아파트
- 명동성당
- 국회의사당
- 서울법원종합청사
- 교보빌딩
- 한국종합무역센터
- N서울타워
- 63빌딩
- 올림픽대교
- 반포대교

서울요금소

궁내동 서울톨게이트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410.3km에 있는 요금소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시점에는 양재동 만남의 광장 휴게소 근처에 서울요금소가 설치되었다가 1987년 수도권의 인구 팽창과 통행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서울톨게이트의 건물 면적은 3,062㎡(928평)이고, 총 32개의 톨부스로 되어 있다. 서울톨게이트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10만대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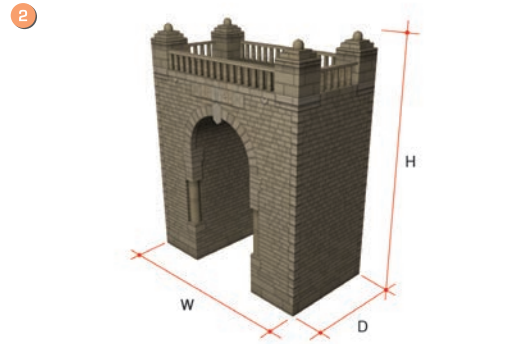
1



독립문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 제32호 독립문은 갑오개혁 이후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을 헐고 세운 기념물이다. 화강석을 쌓아 만든 이 문의 정상에는 돌난간이 둘러져 있으며, 홍예문의 가운데 이맛돌에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오얏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원래 남동쪽으로 70m 떨어진 길 가운데 있었는데, 1979년 성산대로 공사에 따라 지금의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면적은 2,715.8㎡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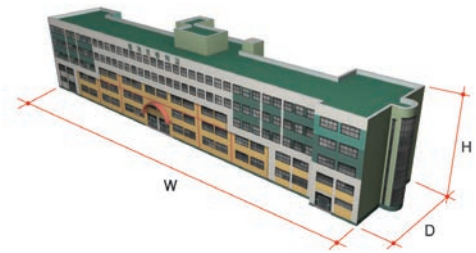


1. W:171m, H:7.4m 2. D:6m, W:11.5m, H:14.3m

범계 초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1번지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로, 직사각형의 일반적인 초등학교 건물 모양을 띠고 있다. 학급 수는 38개이고, 대지면적 12,069㎡, 건축면적 1,423.9㎡에 지상 5층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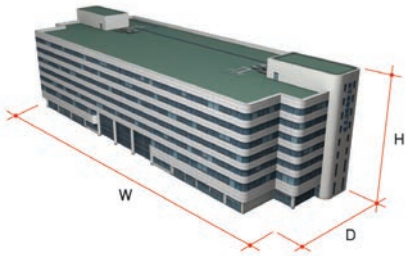
3



동서울터미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번지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은 중부고속도로 활성화 방침에 의거 동북부지역 주민의 고속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교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988년 공용 여객자동차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동서울터미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동서울터미널의 1일 운행은 약 1,200대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3만 명이다. 부지면적은 4만 169.3㎡이고,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이다. 시외버스 승차홈의 개수는 총 36개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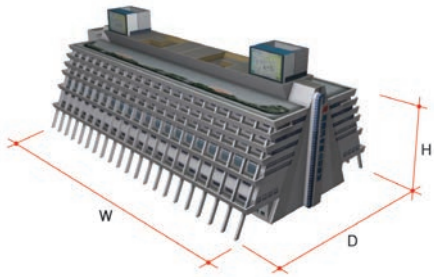


3. D:18m, W:89m, H:18.05m **4.** D:42m, W:121m, H:31.9m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4번지에 1975년 11월 14일 고속버스업계 9개사가 공동 출자로 건축하여, 1981년 10월 20일부터 개업했다. 주요 운행노선은 경부선, 구마선과 영동선이다. 흔히 이 터미널과 이웃한 센트럴시티를 함께 묶어 '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부른다. 센트럴시티는 호남선 고속버스의 서울 기 · 종점이다. 지하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그리고 9호선의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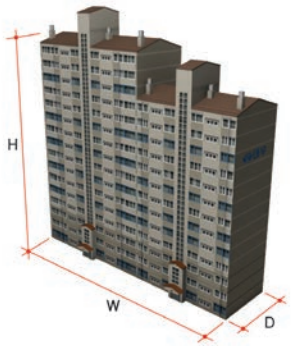
5



판상형 아파트

[정릉동 대우아파트 101동]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의 한 판상형 아파트다. 개별 주호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일자형으로 배치된 형식을 판상형 아파트라 부른다. 보통 남쪽 방향을 향해 '—'자로 배치하기 때문에, 거실에 햇볕이 잘 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쪽 방향으로만 배치하다 보니, 조망이 무시되기 쉽고 상대적으로 배치가 자유롭지 않다보니, 단지가 단조롭고 녹지공원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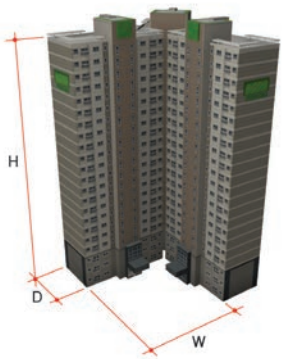


5. D:80m, W:154m, H:50.6m **6.** D:13m, W:48m, H:44.8m

탑상형 아파트

[둔촌동 푸르지오아파트 101동]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어느 탑상형 아파트이다. 몇 세대를 묶어 탑을 쌓듯이 지은 아파트를 탑상형 아파트라 부른다. 탑상형 아파트는 배치상 용적률 확보가 용이하고, 조망이나 녹지공원 확보에 유리하며, 다양한 단지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실이 여러 향으로 나기 때문에 남향을 선호하는 수요를 고려할 때 불리한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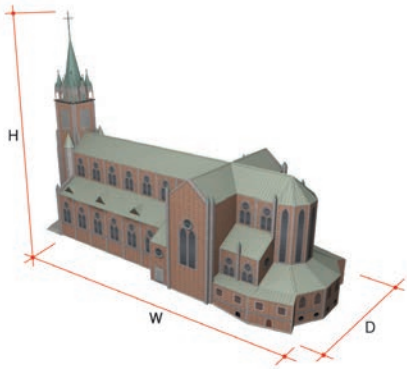
7



명동대성당

명동대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상징이며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교회당 건물로서, 당시의 교구장 블랑(Blanc) 주교가 1883년 무렵 종현(鍾峴) 일대의 대지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는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첫 고딕 양식 건축물(사적 제258호)로 기록된 성당이다. 1945년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성당 명칭은 종현성당에서 명동대성당으로 바뀌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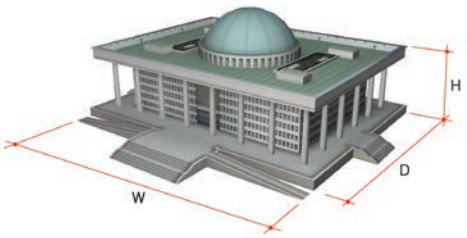


7. D:13m, W:27m, H:67.7m **8.** D:29m, W:68m, H:49m

국회의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은 부지 330,579㎡에 연면적 81,443㎡의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다. 6년의 공사 끝에 1975년 8월에 준공되었다. 밑지름이 64m이고 무게가 1000ton이나 되는 육중한 돔은 회백색의 처마와 파라펫, 높직한 기단과 8각기둥의 24개 각주가 받쳐주고 있다. 높이 32.5m인 24개의 각주는 24절기를 상징하며, 전면의 기둥 8개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상징한다.

9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서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번지의 서울법원청사는 건축가 故 김수근의 유작으로 1989년 9월 신축되었다. 대지면적 100,835.16㎡, 건축면적 11,446.76㎡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지어졌다. 이는 당시에 2000년대의 사건 수, 법관 및 일반직의 수요를 예상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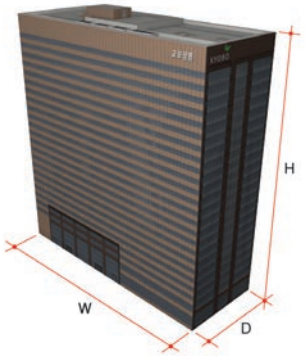
10

9. D:117m, W:158m, H:69.19m 10. W:213m, H:89.13m

교보빌딩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19번지 교보빌딩은 지상 23층, 지하 4층 규모로 1980년 준공된 이래 30년 동안 서울의 랜드마크로 명성을 이어오다가 2011년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남북방향을 가로막고 있던 콘크리트 벽을 걷어내고 유리창으로 마감하는 '커튼월' 창호시스템으로 바꾸었고 교보문고 출입구를 선큰가든으로 조성했으며 그 주변을 열린 광장과 소공원으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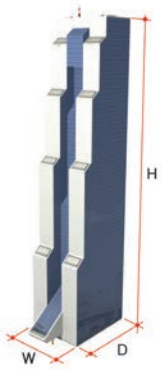
11



한국종합무역센터

한국종합무역센터는 1988년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에 세워진 대한민국 수출 및 국제무역의 중심지이다. 트레이드 타워, 한국종합전시장,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도심공항터미널, 아셈타워 등 6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면적 148,784㎡, 연건축면적 107,933.28㎡에 이르는 규모이며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대한상사중재원, 기타 무역관련 협회와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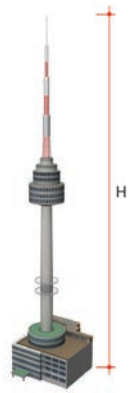


11. D:32m, W:88m, H:92.4m **12.** D:55m, W:43m, H:227m

N서울타워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N서울타워는 1969년 TV와 라디오 방송을 수도권에 송출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세워졌다. N서울타워의 전파탑에는 KBS, MBC, SBS TV와 FM 송신안테나를 비롯하여 PBC, TBS, CBS, BBS FM 송신 안테나 등이 설치되어 있다. N서울타워는 1980년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는데 대지는 8,456㎡, 연면적 15,378㎡로 전망대 일부는 1시간 40분에 1회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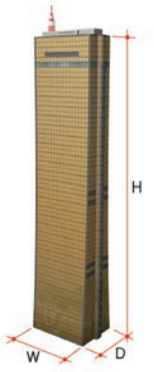
13



63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의 63빌딩은 지상 60층, 지하 3층의 규모이며, 지상높이 249m (해발356m)이다. 1980년 2월 착공하여 총공사비 1,800억 원을 들여 1985년 5월 완공되었다. 해발 265m인 남산보다 1m 낮다. 건물구조는 전체가 탄력성을 지녀, 초속 30m 내외의 태풍이나 진도 5 정도의 지진을 만났을 때, 좌우 진동의 유연성은 60cm, 상층부가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범위는 좌우 40cm이다. 이는 내부의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흔들림이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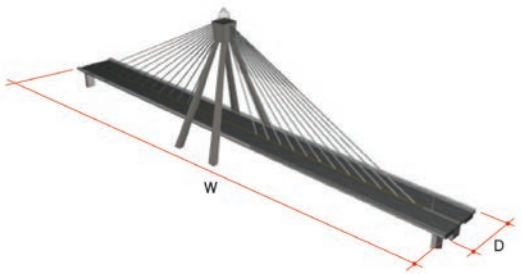


13. H:236.7m **14.** D:40m, W:55m, H:249m

올림픽대교

올림픽대교는 국내 최초의 콘크리트 사장교로서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85년 10월 착공하여 1990년 9월 준공된 한강의 16번째 교량이며, 천호대교 및 잠실대교의 과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세워졌다. 다리 가운데 4개의 콘크리트로 된 88m 높이의 주탑을 세워 24쌍의 강선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88서울올림픽이 24회라는 뜻이다. 주탑 꼭대기에는 올림픽 성화를 연상한 조형물이 2001년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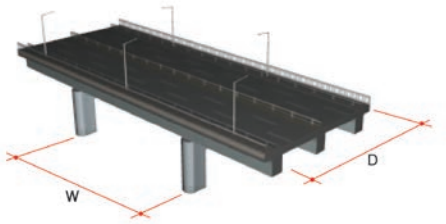
15



반포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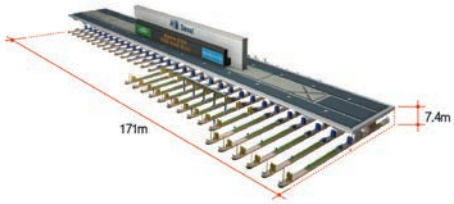
반포대교는 용산구 서빙고동 4번지와 서초구 반포동 137번지 사이 한강에 있는 다리이다. 다리 이름은 반포동의 동명에서 유래되었는데, 폭 25m, 길이 1,490m로 경간이 49개이며, 1982년 6월 25일 한국건업에 의해 준공되었다. 국내 처음으로 2층 교량으로 가설되었는데 1976년 완공된 1층은 잠수교, 2층은 반포대교의 단일구조적 이중 교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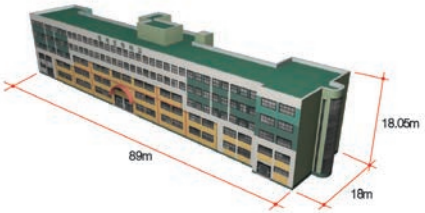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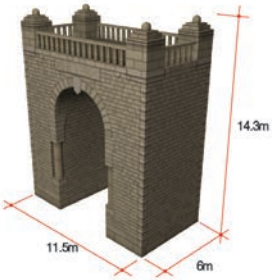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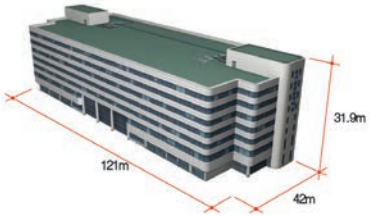
15. W:300m, H:30m **16.** D:25m, W: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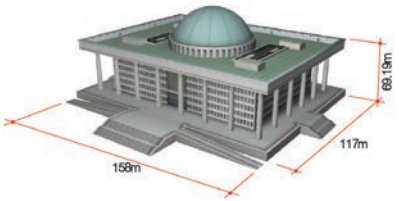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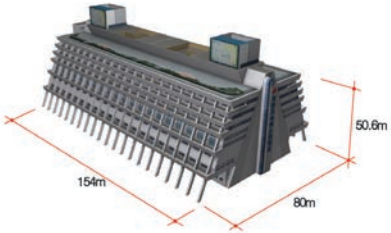

171m
7.4m


89m
18.05m
1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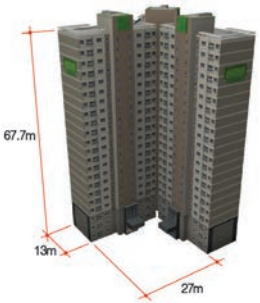

14.3m
11.5m
6m


121m
31.9m
4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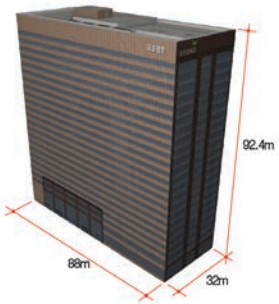

158m
69.19m
11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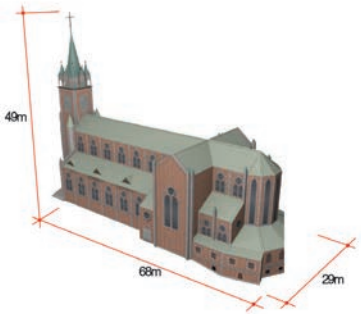

154m
50.6m
8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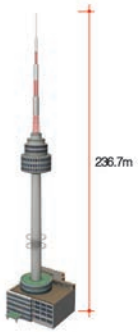
44.8m
48m
1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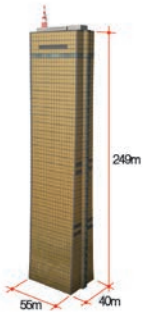

67.7m
13m
27m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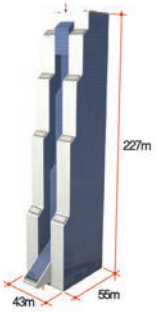

92.4m
88m
3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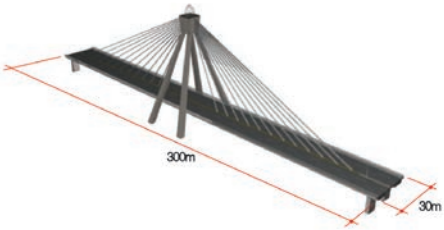

49m
68m
2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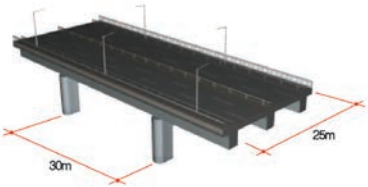

236.7m


249m
55m
40m

89.13m
213m


227m
43m
55m


300m
30m


30m
25m

가로확대건축물 높이에 대한비율 (D/H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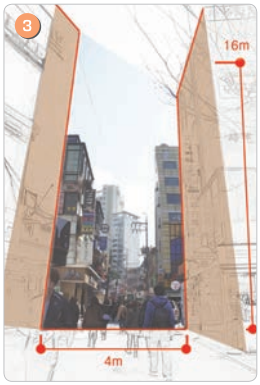
- 대학로
- 강남역
- 종각
- 상도동
- 마포
- 홍대
- 인사동
- 가로수길
- 여의도
- 명동
- 신촌
- 삼청동
- 사당

대학로

대학로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사거리에서 혜화동 132번지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가로로 길이 1.55㎞, 너비 25~40m이다. 1985년 5월 이 일대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의 거리로 개방하면서 도로 이름을 만들었다. 대학로의 D/H비는 약 0.25 정도로, 이 정도의 비율일 때 사람의 시야는 통상 상 · 하위 60°로서, 반대 측 건물높이의 약 1/4정도만이 보인다. 따라서 정도가 심한 폐쇄감과 먼 거리에서까지 밀실공포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 또한 일조의 불량과 'wind-tunnel' 현상이 발생하며, 토지의 고밀이용이 불가피한 도심부에서만 바람직하다.

홍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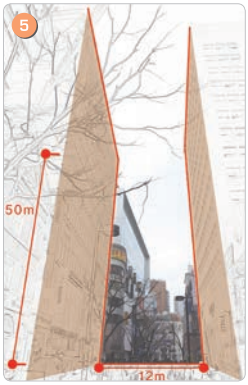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의 홍대 앞은 젊음과 낭만, 예술과 언더그라운드 문화, 개성 넘치는 자유의 거리로 대변된다. 보통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양화대로변까지 200여m 반경의 지역을 뜻한다. 정문을 기점으로 산울림 극장까지 난 와우산길 좌우에는 각종 대형미술학원과 사이사이에 화방이 자리하고 있어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미술대학이 있는 홍대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는 길이다. 홍대의 D/H비는 0.25~0.43 정도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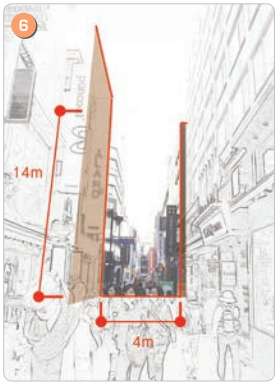


1. D/H비 = 0.21 2. D/H비 = 0.33 3. D/H비 = 0.25 4. D/H비 = 0.43

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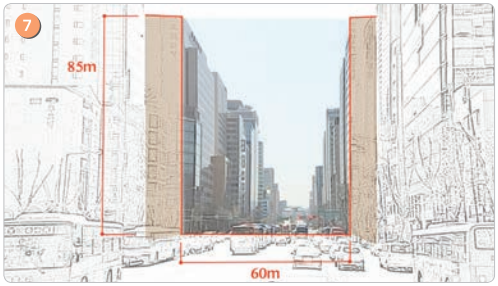
서울시 중구 명동은 조선시대 주택지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상업지역으로 발전한 곳으로, 의류, 제화 등 패션 매장을 비롯한 고급쇼핑의 관광명소로 평일에는 하루 150만 명 이상, 주말에는 300만 명이 찾는 관광중심지다. 명동의 D/H비는 0.25~0.7 분포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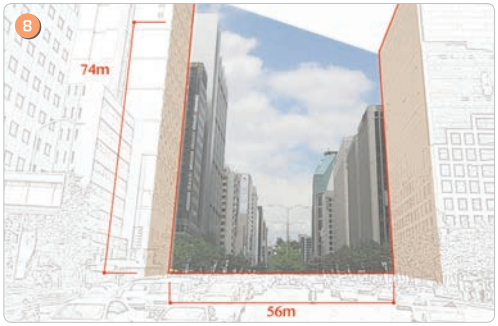




강남역

서울의 강남역 또는 강남역 사거리는 강남역 주변에 형성된 상권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강남역 주변 상권은 한강 이북의 명동과 함께 서울시의 양대 번화가로 꼽히고 있으며, 많은 유동 인구를 자랑한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에 위치한다. 강남역거리의 D/H비는 0.7가 조금 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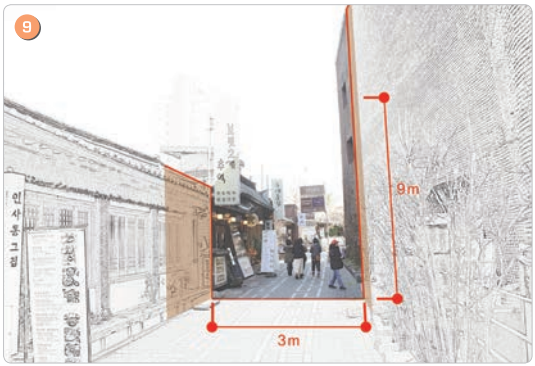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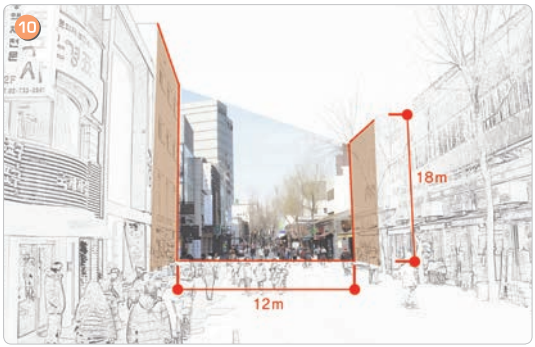


5. D/H비 = 0.24 **6.** D/H비 = 0.29 **7.** D/H비 = 0.42 **8.** D/H비 = 0.43

인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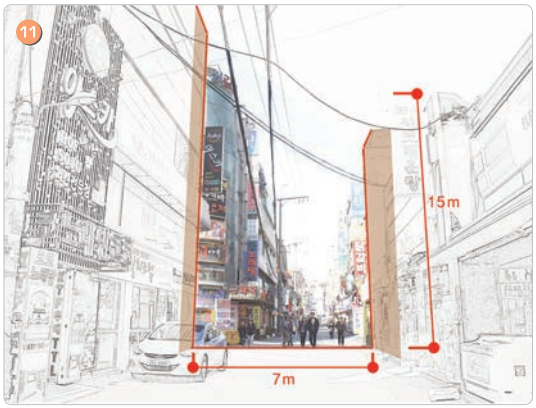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은 전통찻집, 화랑, 미술도구 상점을 비롯해 전통음식점과 도예점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상점이 있으며, 1988년에 '전통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이후부터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를 열고 있다. 인사동의 D/H비는 0.3~0.6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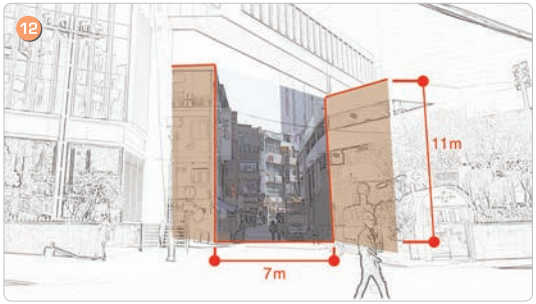




신촌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신촌역을 잇는 거리로 이 일대는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추계예술대 등 5개 대학의 중심지이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번화가이며 대형 병원들도 위치하고 있다. 신촌의 D/H비는 0.47~0.64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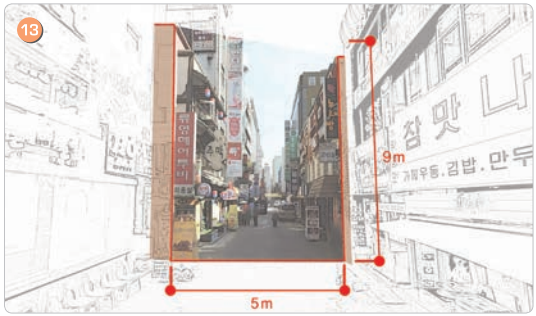




9. D/H비 = 0.33 **10.** D/H비 = 0.67 **11.** D/H비 = 0.47 **12.** D/H비 = 0.64

종각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새롭게 정비한 '젊음의 거리'로 청계천과 인접해 있다. 이곳은 서울시가 종로 1~2가 일대 노점상 96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점거리라는 새로운 개념의 거리를 만든 곳이다. 거리 중앙에 비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을 설치하고 노점을 위한 깔끔한 판매대를 설치했다. 종각의 D/H비는 0.6~0.75 정도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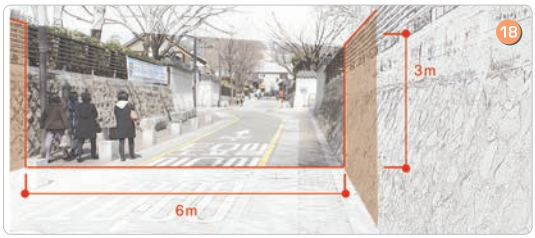
가로수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가로수길은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으로 통하는 2차선 은행나무길을 가리킨다. 왕복 2차로 양 옆으로 16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쭉 줄지어 있어 가로수길 이라고 불린다. 가로수길의 D/H비는 약 1.0 정도로, 이 정도의 비율일 때는 건물의 높이와 그 사이의 공간이 가장 균형 있고, 쾌적한 공간감을 만들어 낸다. 또한 45°의 시야에서 반대 측 건물을 바라볼 수 있지만, 최정점은 볼 수 없으며 폐쇄감은 여전히 느껴지지만 적당한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가로경관에서 소실점과 거리감을 인식할 수 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변이나 광장주변에 적합한 비례이다.

13. D/H비 = 0.56 14. D/H비 = 0.75 15. D/H비 = 0.91 16. D/H비 = 1.08

삼청동

서울시 종로구의 삼청동 거리는 예스러움을 간직한 한옥건물의 전통미와 현대미가 잘 조화되어 있는 곳이다. 삼청동의 D/H비는 1.2~2의 분포이다. D/H비가 1.2정도일 때는, 건물의 높이와 그 사이의 공간은 가장 균형있고,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지며, 적당한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D/H비가 2정도일 때는 도로 반대 측의 입면을 완전히 볼 수 있지만, 입면만으로 시야를 거의 가득 차게 한다. 바람직한 위요감을 느끼며 폐쇄감은 소멸하고 균형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D/H비가 1~2 정도일 때 균형감 및 안정감이 가장 좋으며, 가로경관에서 소실점과 거리감을 인식할 수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변이나 광장주변에 적합한 비례이다.



상도동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지명은 예전에 상여꾼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상투굴이라고 부르던 데서 유래되었다. 사당이고개, 노들고개, 병목꿀고개, 살피재, 능고개 등 이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말해주는 고개이름이 많이 남아있다. 상도동의 주요 간선가로의 D/H비는 2.39로, 이 정도의 비율일 경우 도로 반대측의 입면을 완전히 볼 수 있지만, 입면만으로 시야를 거의 가득 차게 한다. 바람직스러운 위요감을 느끼며,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고 폐쇄감은 소멸한다. 이는 통과 교통을 위한 가로나 상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가로에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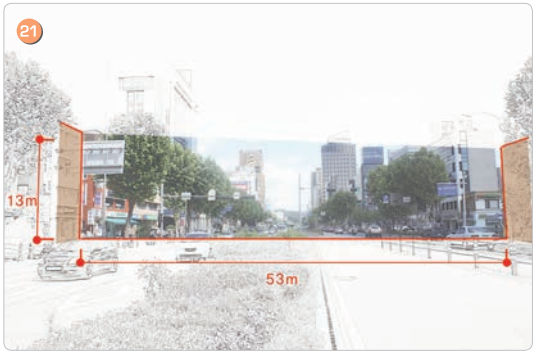
17. D/H비 = 1.2 18. D/H비 = 2 19. D/H비 = 2.39

여의도

여의도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한강의 하중도(河中島)이다. 1916년 이 곳에 간이비행장을 건설함으로써 섬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여, 1968년 서울시에서 윤중제(輪中堤) 공사를 착공한 뒤 오늘날과 같이 상업 · 금융업무 · 주거지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의 D/H비는 3정도로, D/H비가 이와 같을 때에는 입면을 보는 시야의 범위가 18°가 되어 공간감을 느끼는 정도가 약해지며, 일렬로 나란히 한 건물은 공간을 구획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또한 수직의 공간감보다는, 오히려 장소의 감각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가로의 상징성(경관축)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가로에 적당하다.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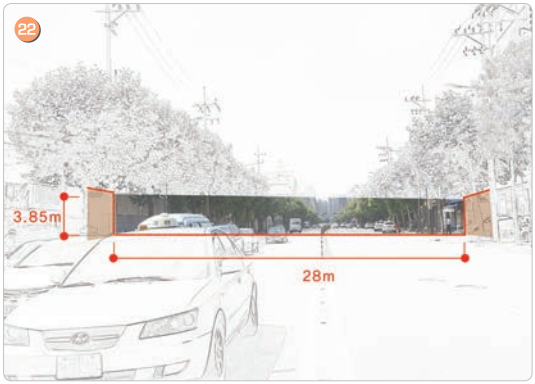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의 지명은 옛날 이곳에 큰 사당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졌다. 사당로와 동작대로가 교차하고 동작구 · 서초구 · 관악구가 나누어지는 사당사거리는 지하철 2,4호선의 사당역이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사당사거리 부근 동작대로의 D/H비는 약 4정도로, D/H비가 이와 같을 때 건물은 풍경의 일부로 인식되고 만다. 일렬로 나란히 한 건물은 공중과 지면에 끼워져 있는 시야 중의 긴 띠가 되는데, 이와 같은 비율은 공간의 관계가 희박하고 공허함과 노출감을 느낀다. 건물은 가로벽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단지 경계로서의 존재가 된다(식재를 통해 완화).



20. D/H비 = 2.86 21. D/H비 =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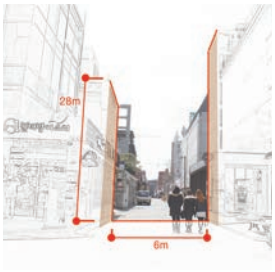
마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은 우리말 '큰더기' , 즉 큰 언덕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공덕오거리에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공덕역이 위치해 있다. 공덕오거리 부근의 독막길의 D/H비는 약 7.27정도로, D/H비가 이와 같을 때 건물은 풍경의 일부로 인식된다. D/H비가 4.5 이상 일 때, 건축물의 인식 범위에 대해서 메르텐스(H.Martens)는 건물이 순회화적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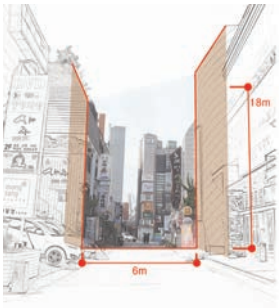


22. D/H비 =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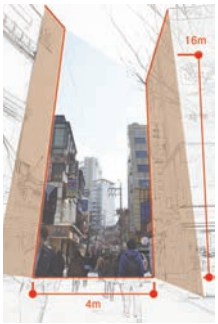
Summary



D/H비 =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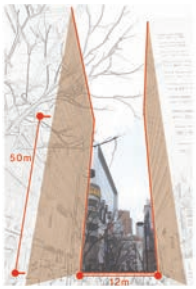


D/H비 =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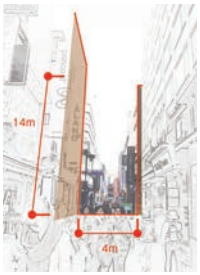


D/H비 =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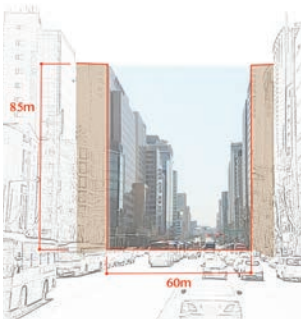
D/H비 =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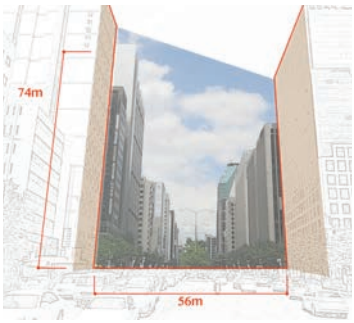
D/H비 =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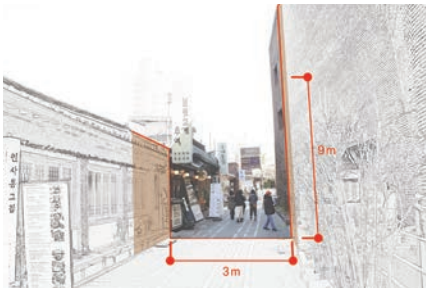
D/H비 =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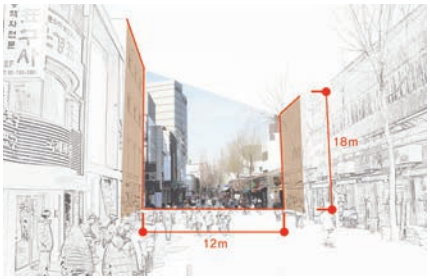
D/H비 = 0.71



D/H비 =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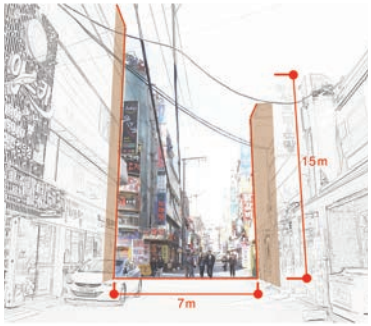


D/H비 =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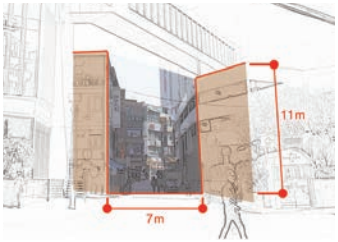


D/H비 =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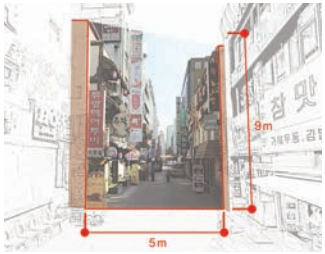
Summary



D/H비 =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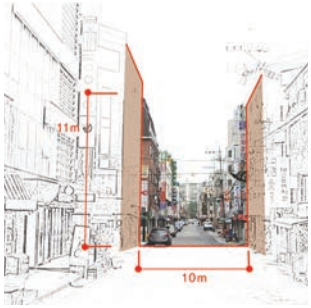


D/H비 =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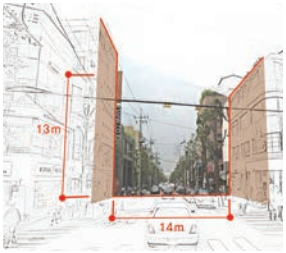


D/H비 =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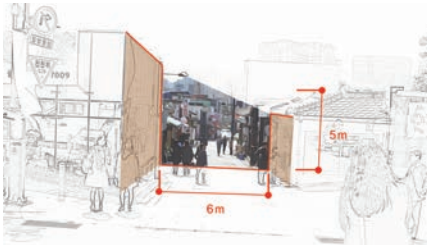
D/H비 = 0.75



D/H비 = 0.91



D/H비 =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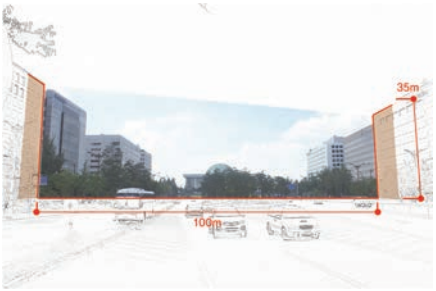


D/H비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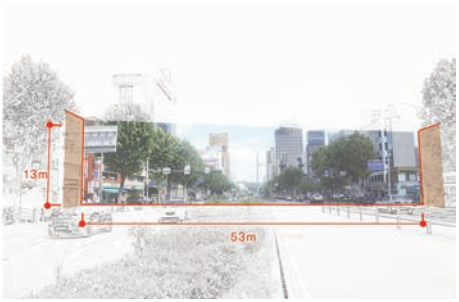
D/H비 = 2

Summary

D/H비 = 2.39



D/H비 = 2.86



D/H비 = 4.08

D/H비 = 7.27

Chapter 3

Urban Scale

이 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공원과 광장,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지구들,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면적을 익히고자 한다. 이처럼 넓은 단위의 면적은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들의 면적을 알아두는 것은 설계자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공원, 광장

- 청계광장
- 마로니에공원
- 서울광장
- 광화문광장
- 용산가족공원
- 선유도공원
- 보라매공원
- 어린이대공원
- 경마공원
- 올림픽공원
- 여의도공원
- 남산공원
- 서울대공원

청계광장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번지의 청계광장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지점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에 조성된 광장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지던 2005년 3월 서울시에서 지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명칭으로, 청계천의 시작 지점인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 광장을 가리키며, 청계천으로 진입하는 공간으로서 삼색 조명이 어우러진 촛불 분수와 4m 아래로 떨어지는 2단 폭포가 설치되어 있다. 2단 폭포 양옆에는 8도(道)를 상징하는 석재로 팔석담(八石潭)을 조성하였다. 잠실구장의 1/13 크기로, 4,000~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마로니에공원

마로니에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으로 칠엽수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이다. 오뉴월에 흰색 바탕에 붉은 무늬가 있는 종 모양의 꽃이 핀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터전으로 문을 연 마로니에공원은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법대 자리인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마로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마로니에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각종 야외 문화행사장, 조각 전시장, 문예회관 등이 있는 이곳은 서울 시민의 꿈과 낭만이 어린 문화예술의 거리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마로니에공원은 광화문광장의 절반크기이다.

1. 2,026m² 2. 9,1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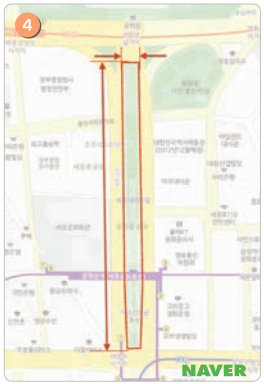
서울광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시청 앞에 위치한 서울광장은 대청마루에 뜬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타원형의 잔디광장이다. 타원형인 광장 둘레를 따라 보행인구가 많은 바깥쪽은 화강석을 깔아 보도를 만들고, 덕수궁 쪽에는 소규모의 둥근 잔디밭을 따로 조성해 시민들의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63년 첫 가동되어 40여 년간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켜온 분수를 철거하고 설치한 새 분수는 가로 · 세로 9.5m 넓이의 일명 '춤추는 바닥분수'이다. 바닥분수는 분수가 가동되지 않을 때는 그냥 보도처럼 보이지만 가동되면 화강석 바닥에 뚫린 121개의 지름 30cm 구멍(노즐)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분수이다. 잠실구장의 절반크기에 달한다.

3. 13,207m²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은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와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세종로 중앙에 조성된 광장으로, 평상시엔 차도로 쓰이지만 대규모 행사 시 광장으로 활용 가능한 왕복 10차선의 예비광장이 있다. 세부 구간은 '광화문의 역사를 회복하는 광장', '육조거리의 풍경을 재현하는 광장', '한국의 대표 광장',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문화 광장', '도심 속의 광장', '청계천 연결부'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앞에 자리하는 '한국의 대표광장'에는 창의와 실용의 정신으로 문화강국을 이루자는 뜻으로 높이 6.2m, 폭 4.3m에 4.2m의 기단(基壇)위의 무게 20톤 규모의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졌고 세종이야기 등 상설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잠실롯데월드타워(123층)의 높이와 같은 길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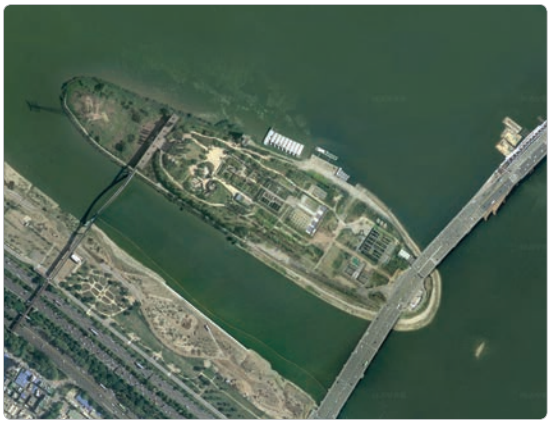
용산가족공원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8-87번지의 용산가족공원은 8.15광복 이후 주한미군사령부의 골프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1992년 11월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여 문을 연 시민공원이다. 1997년 11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규모가 8만 9,256㎡으로 줄어들었고,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골프장의 잔디와 숲 · 연못 등은 그대로 두고 4.6km의 산책로와 조깅코스, 느티나무 · 산사나무 · 구상나무 등 80종 1만 5,000그루의 나무와 원두막을 갖춘 자연학습장, 태극기공원, 잔디광장 등을 새로 마련하였다. 용산가족공원은 축구장 12개 규모이다.

4. 면적:18,840m² 길이:555m 폭:34m **5.** 89,256m²

선유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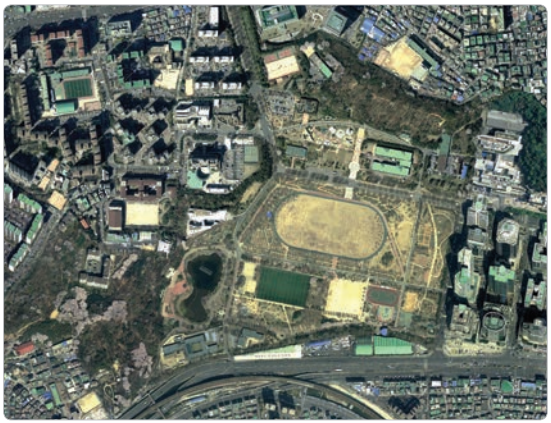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에 위치한 선유도공원은 한강 내의 섬 선유도의 옛 정수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재활용생태공원이다. 선유도는 본래 선유봉이라는 작은 봉우리 섬으로 일제 강점기 때 홍수를 막고, 길을 포장하기 위해 암석을 채취하면서 깎여나갔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00년 12월 폐쇄된 뒤 서울시에서 164억 원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공원에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평동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와 선유도를 잇는 너비 4~14m, 길이 469m의 보행전용 교량 선유교도 설치되어 있다. 무지개다리로도 일컬어지는 아치형의 선유교는 교량 아래에서 빨강과 노랑 · 초록 · 파랑 등 4가지 빛으로 조명을 비추어 야간에 더욱 아름답다. 공원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방한다. 선유도 공원은 잠실구장 4개 규모이다.



6. 110,407m²

보라매공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에 위치한 옛날 공군사관학교자리를 보수하여 1986년 5월 5일 공원으로 개원하면서, 공군사관학교 때의 상징인 “보라매”를 그대로 이름에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잔디광장, 에어파크, 연못(음악분수),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x-게임장, 암벽등반대 등이 있고, 맨발공원 등 휴양시설과 각종 편익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특히, 비행기 8대가 전시되어 있는 에어파크는 옛 공군사관학교의 정기를 느낄 수 있으며, 공원 내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동작구민회관 등 11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다. 보라매공원은 잠실구장 16개 규모이다.



7. 424,106m²

어린이대공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번지에 위치한 어린이 대공원은 동물원, 식물원, 놀이동산 및 다양한 공연시설과 체험공간이 가득한 가족테마공원으로, 전체 면적 중 331,664m²(62%)가 다양한 수목과 잔디로 이루어진 도심 속 푸른 숲이다. 어린이대공원은 과거 대한제국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황제비 순명황후 민씨의 능역으로 순종황제가 자주 찾으셨던 유서 깊은 곳이었다. 1926년 순종황제가 승하하자 그 해 6월에 순명황후 능은 경기도 양주군(현 남양주시)으로 이장하였으며 이곳은 그 후 골프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70년 12월 4일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1972년 11월 3일 어린이대공원 기공식을 갖고, 이듬해 개원하였다. 축구장 80개 규모의 크기이다.

8. 593,036.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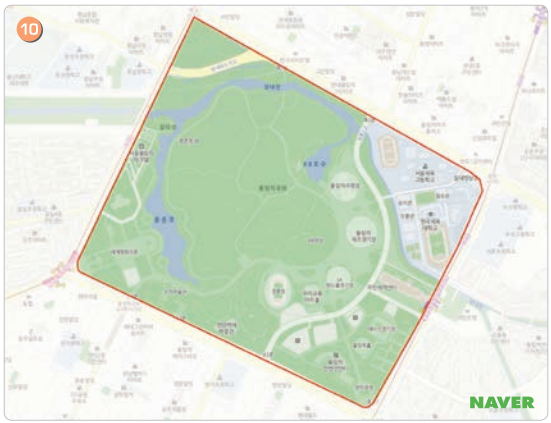
경마공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의 경마공원은 청계산, 관악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의 북쪽에 접한 국제규모의 경기장이다.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치르고, 1989년 9월 개장하면서 뚝섬경마장(1954.5~1989.8)은 폐장하였다. 관람대는 지하 1층 · 지상 6층의 규모로 길이 210m, 폭 50m에 달한다. 이밖에 마장마술(馬場馬術)연습장 · 장애물비월연습장 · 지구력경기 D코스 연습장 · 원당지구력경기장 등의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마공원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과 같은 넓이이다.

9. 1,160,000m²

올림픽공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에 위치한 올릭픽공원은 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지금은 체육/문화예술/역사/교육/휴식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종합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3개 테마공원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산책 · 조깅 코스, 건강지압로, 인라인스케이팅, 레포츠 킥보딩, 엑스게임경기장으로 이루어진 건강 올림픽공원이고, 둘째는 몽촌역사관, 몽촌토성, 평화의 성지, 조각작품공원, 올림픽미술관으로 이루어진 볼거리 올림픽공원, 셋째는 호돌이 관광열차, 음악분수, 웨딩사진 찍기, 이벤트 광장 등으로 구성된 재미있는 올림픽공원이다. 청라지구 첨단산업단지 면적과 유사한 면적이다.



10. 1,447,934m²

여의도공원

여의도공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에 있으며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자리하고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직장인과 일반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라 할 수 있다. 여의도 중심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자연을 불러들인 공원으로, 자연생태의 숲,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 한국 전통의 숲으로 구분된다. 인접한 국회의사당 넓이의 12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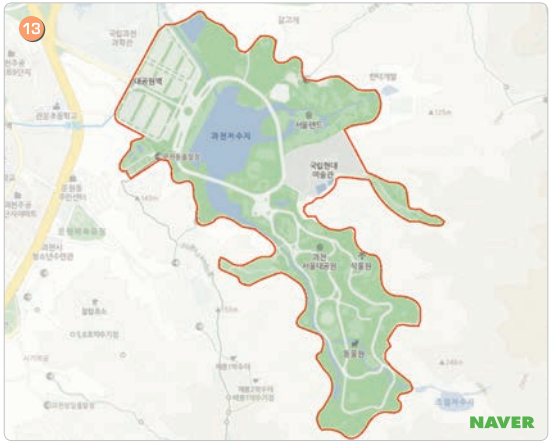
남산공원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번지의 남산공원은 도심에 위치하여 서울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자연휴식처이며, 산책 · 꽃구경 · 공연관람 · 서울타워 · 남산케이블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68년 9월 10일 개원하였으며, 그 기반시설로는 광장 45,950㎡, 도로 108,530㎡, 산책로 6.7㎞(북측:3.7㎞/남측:3.0㎞)가 있고, 순환도로의 길이는 18.9km 이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큰 공원이다. (서울대공원이 과천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현충원 면적의 약 2배이다.

11.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1,487,374m² 여의도공원:229,539m² 샛강생태공원:182,000m² 12. 2,898,351m²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번지의 서울대공원은 도시인의 녹지공간 확보와 위락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가 1978년 착공하여 1984년 5월 개원하였다. 과거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말살술책의 하나로 1909년(융희 2년) 서울의 유서 깊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으며, 해방 후 우리 국민들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 창경궁을 복원하기 위해 1984년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 서울대공원을 세워 동물들을 이전함으로써 서울대공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세계 10대 동물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속의 공원이 되었다.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이다.



13. 9,162,690m²

Summary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선유도공원
서울시청
서울광장
광명시청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마로니에공원
남산공원
서울시청
용산가족공원
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과천시청
구리시청
NAVER

Summary

Section 01 | 공원, 광장

청계광장

마로니에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용산가족공원

선유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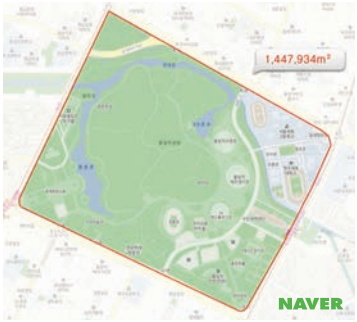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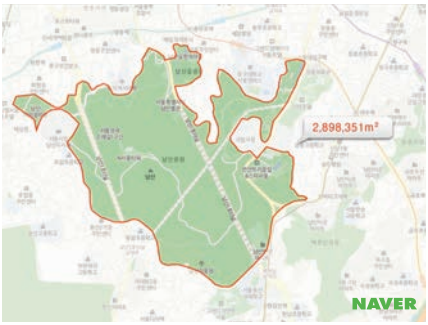
Section 01 | 공원, 광장

경마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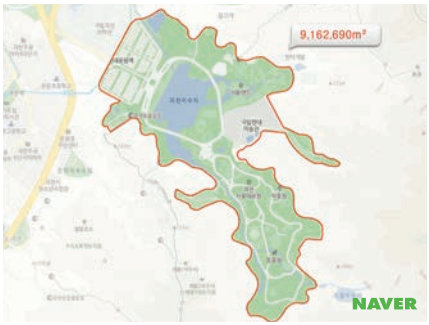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지구

- 광장시장
- 서래마을 카페거리
- 종각 젊음의 거리
- 신사동 가로수길
- 롯데월드
- 동대문패션거리
- 이태원거리
- 코엑스 지구
- 명동거리
- 인사동 문화지구
- 경복궁
- 강남역 거리
- 압구정로데오 & 청담거리
- 홍대 거리
- 신촌이대거리
- 국립현충원
- 에버랜드

광장시장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6-1번지 광장시장은 10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이다. 종로4가와 예지동 일대에 자리 잡은 배오개시장은 조선 후기 서울의 3대 시장으로 손꼽혔다. 원래 이 시장은 광교(너른 다리)와 장교(긴 다리) 사이를 복개하여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리 이름의 첫머리를 따서 '너르고 긴' 이라는 뜻의 '광장(廣長)'이라 이름 지었다. 하지만 당시 토목 기술로는 큰 비를 견디지 못하여 그 곳에 있지 못하고 배오개로 터를 다시 잡았고, 배오개로 이사 온 후에도 이전 이름의 한글 발음은 그대로 둔 채 '널리 모아 간직한다.'는 뜻을 새로 담아 현재의 '광장(廣將)시장'이 되었다. 한국종합무역센터의 연건축면적과 비슷한 면적이며, 롯데월드 면적의 1/3 규모이다.

1. 42,150m²

서래마을 카페거리

서래마을은 서초구에 위치한 프랑스인 밀집지역으로 한남동에 있던 서울 프랑스학교가 1985년 옮겨 오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프랑스인 마을이다. 원래 마을 앞의 개울이 서리서리 굽이쳐 흐른다 하여 서래란 이름이 붙여졌다. 일명 '쁘띠 프랑스(작은 프랑스)' , '서울 속의 프랑스' 라고도 불린다. 서래마을 가운데 위치한 서래로는 몇 년 사이에 브런치 카페, 디저트 카페 등 카페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특별한 '거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종각 젊음의 거리와 면적이 비슷하다.

종각 젊음의 거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종각 젊음의 거리는 젊은이들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정비한 길로 청계천과 인접해있다. 이곳은 서울시가 종로 1~2가 일대 노점상 96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곳이다. 거리 중앙에 비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을 설치하고 노점을 위한 깔끔한 판매대를 설치했다. 제도권으로 편입된 최초의 노점거리로, 덕수궁의 면적과 거의 같다.

2. 60,700m² 3. 61,000m²

신사동 가로수길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으로 통하는 2차선 은행나무길이다. 왕복 2차로 양 옆으로 16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쭉 줄지어 있어 가로수길이라고 불린다. 아기자기한 커피숍과 맛집, 디자이너들의 옷 매장들이 즐비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가을에는 낙엽 지는 거리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인사동 문화지구의 절반 규모이다.

롯데월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에 위치한 롯데월드는 놀이시설과 쇼핑, 문화, 스포츠 시설이 모두 모인 대단위 복합생활공간이다. 실내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야외 테마 놀이공원인 매직 아일랜드, 민속박물관, 수영장, 실내 아이스링크 및 호텔, 백화점으로 이루어진 복합 공간으로 1989년 문을 열었다. 호텔롯데 잠실점과 연결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다. 에버랜드 면적의 1/19 정도이다.

4. 106,000m² **5.** 128,245m²

동대문패션거리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의 동대문 패션타운은 관광특구로 옛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분포된 전통 재래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공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산업단지라 할 수 있다. 대형 상가 30여 곳에 3만 5000여개의 점포, 15만 명의 종사자가 있다. 24시간 도 · 소매 쇼핑이 가능하여 연간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쇼핑 · 관광명소다. 2008년 8월 오랜 역사를 지닌 동대문운동장 야구장과 축구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디자인플라자를 건립 중이다. 보라매공원 면적의 1/3 가량이다.

이태원거리

서울시 용산구의 이태원거리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여행명소로, 서울에서는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문화거리이다.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태원은 서울 주둔 미군기지로서 군사지역의 면모를 강화하였고, 이들을 위한 구멍가게나 가건물 주점, 기지촌 등이 들어서면서 미군위락지대로 변모하였다. 90년대 후반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태원은 미군 중심의 거리에서 세계인의 거리로 변모하였고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전통과 현대,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혼재하는 '퓨전'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광장의 11배, 축구장 20개 정도의 규모다.

6. 139,000m² **7.** 144,000m²

코엑스 지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9번지에 위치한 코엑스는 대한민국 수출 및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트레이드 타워,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등 6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쇼핑센터인 코엑스몰은 지하1층에 있는 약 3만 4000평의 문화 · 관광 · 쇼핑단지로 대형 서점과 영화관 · 수족관 · 면세점 · 김치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다. 그밖에 지상 7층, 지하4층에 연건축면적 6만 5485㎡규모의 도심공항터미널과, 지상 41층, 지하 4층, 연건축면적 4만 4486평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오피스 빌딩인 아셈타워가 있다. 휴식공간으로는 조각정원과 5,000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등이 있다. 광화문광장 면적의 약 10배에 달한다.

8. 192,000m²

명동거리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명동은 조선시대 주택지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상업지역으로 발전한 곳으로, 의류, 제화 등 패션 매장을 비롯한 고급쇼핑의 관광명소로 평일에는 하루 150만 명 이상, 주말에는 300만 명이 찾는 관광중심지다. 롯데백화점, 롯데영플라자, 명동밀리오레 등 작은 소품에서 고급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대한민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은행인 한국은행, 국내외의 섬유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섬유예술 박물관인 초전섬유퀼트박물관 등의 명소가 있다. 광화문광장 면적의 약 11배 정도이다.

인사동 문화지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은 1988년에 '전통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서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를 열고 있다. 유동인구는 외국인포함 평일에 2~3만 명, 휴일에 7~10만 명 정도이다. 인사동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현대와 과거가 만나는 거리이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축제, 문화행사 등이 열리고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몇 안남은 거리이다. 오래된 골동품에서 품위 있는 도자기, 미술품, 전통찻집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 고유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창경궁의 면적과 거의 같다.

9. 207,000m² 10. 210,000m²

경복궁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번지에 위치한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이다. 북으로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거리(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서울) 도시 계획의 중심이기도 하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하여 근정전 등 극히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았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으나 다행히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되어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 일원을 복원하였으며, 왕과 왕비의 침전, 동궁, 건청궁, 태원전 일원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광화문에서 교태전을 잇는 중심 부분은 궁궐의 핵심 공간이며,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대칭적으로 건축 되었다. 그러나 중심부를 제외한 건축물들은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변화와 통일의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의 약 2배 가량의 넓이다.

강남역 거리

강남역 또는 강남역 사거리는 강남역 주변에 형성된 상권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강남역 주변 상권은 한강 이북의 명동과 함께 서울시의 양대 번화가로 꼽히고 있으며, 많은 유동 인구를 자랑한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에 위치한다. 여의도 면적의 1/9 가량이다.

11. 432,703m² 12. 495,000m²

압구정로데오 & 청담거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청담동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과 문화의 거리로, 2008년 정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강남 청담 · 압구정 패션특구”로 지정 되었다. 로데오거리는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패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비버리힐즈의 로데오거리를 표방하여 형성되었으며 동쪽의 상징탑에서는 매년 문화축제의 야외무대로 이곳에서 각종 문화공연이 열리고 있다. 압구정로데오거리가 청담거리보다 약 1.8배 넓으며, 총면적은 강남역거리보다 조금 크다.

홍대 거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홍대거리는 젊음과 낭만, 예술과 언더그라운드 문화, 개성 넘치는 자유의 거리로 대변되는 거리이다. 다양한 행사와 거리공연, 축제 등의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다. 홍대주변에는 미술학원거리, 피카소거리, 클럽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 이색거리가 있다. 특히 홍대 주변 거리는 ‘거리미술’로 유명하다. 새로운 거리미술과 설치작품전, 참여미술, 다양한 공연 퍼포먼스가 함께 펼쳐진다. 동양 최대의 인공호수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의 절반가량의 면적이다.

13. 전체면적:500,000m² 청담동거리:179,000m² 로데오거리:321,000m² 14. 526,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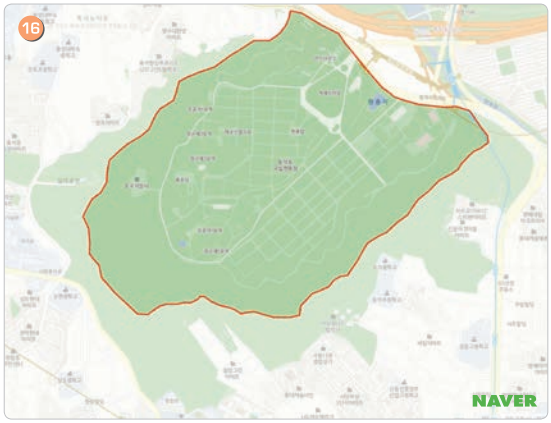
신촌이대거리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신촌역을 잇는 거리로 일대는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추계예술대 등 5개 대학의 중심지이며, 대형 병원들이 있다. 미용과 패션의 거리로 서울의 대표적인 다운타운 중 하나이다. 신촌과 이화여대 앞 상권은 1990년대까지 종로, 명동과 더불어 '강북 3대 상권'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던 곳으로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를 잇는 대학가 상권으로 분류되지만 여의도와 마포지역 직장인들까지 신촌의 주요 손님일 정도로 광역 상권이었다. 축구장 약 80개, 잠실구장 약 22개의 크기이다.

15. 586,000m²

국립현충원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산44-7번지의 국립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국가 유공자 등 호국영령들을 모신 국립묘지이다. 국립묘지는 1955년 7월 15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관악산 줄기 43만여 평(142만㎡)의 대지에 설립되었다. 전쟁 이후 군인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군묘지 안장업무가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령으로 재정립되어 애국지사, 경찰관 및 향토예비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5년 7월 29일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작동 국립묘지의 명칭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되고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도 안장대상자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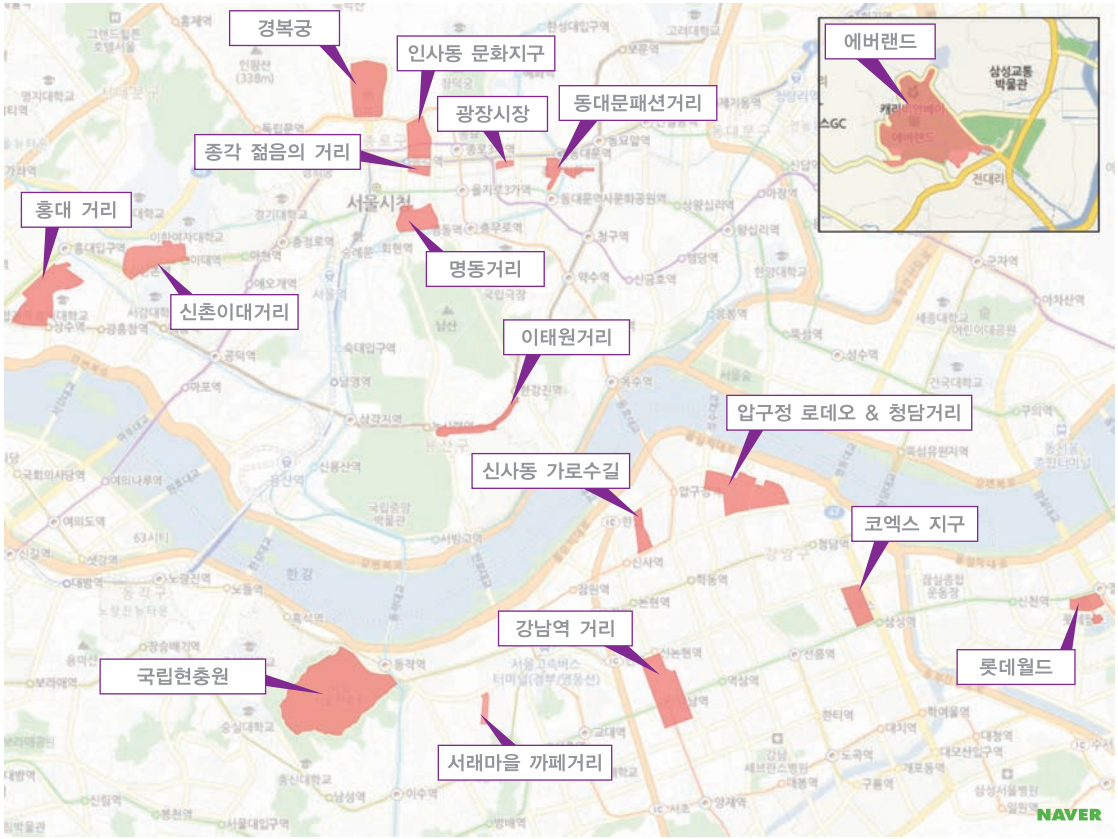
16. 1,428,104m²

에버랜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번지의 에버랜드 리조트는 세계 4대 테마파크로 꼽히는 에버랜드, 워터파크(캐리비안 베이), 숙박시설(홈브리지), 국내최대의 자동차 경기장(스피트웨이), 골프코스(글렌로스 골프클럽)과 호암미술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 남쪽 35km, 영동고속도로 분기점에서 7km 지점에 있으며, 1976년 4월 국내 최초의 가족공원인 용인자연농원으로 문을 열었다가 1996년 3월 에버랜드로 개칭하였다. 롯데월드의 11배의 크기이다.

17. 1,488,000m²

Summary


경복궁
인사동 문화지구
광장시장
동대문패션거리
종각 젊음의 거리
홍대 거리
신촌이대거리
명동거리
이태원거리
압구정 로데오 & 청담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코엑스 지구
강남역 거리
롯데월드
국립현충원
서래마을 까페거리
에버랜드
서울시청
NAVER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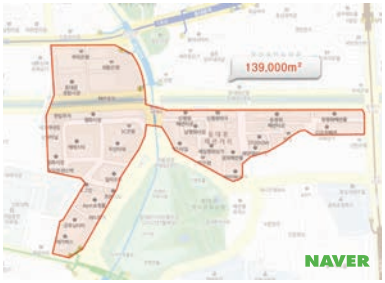
광장시장

서래마을 카페거리

종각 젊음의 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롯데월드



동대문패션거리

이태원거리

코엑스 지구

Summary

명동거리

인사동 문화지구

경복궁

강남역 거리

압구정로데오 & 청담거리

홍대 거리

신촌이대거리

국립현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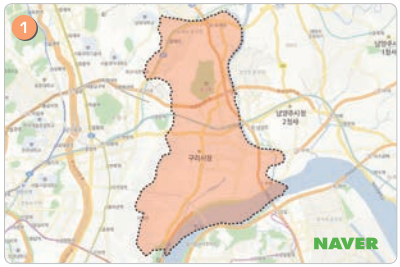
에버랜드

도시

- 시
- 군
- 구
- 특별시 및 광역시
- 도
- 강
-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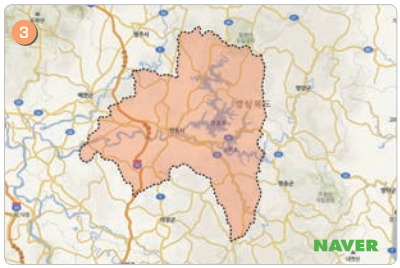
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77개의 시가 있으며 그 평균면적은 512,961,930m² 이다. 경기도에는 27개의 "시"가 있는 반면에, 충북에는 제주도보다 하나 많은 단 3개의 "시"만 있다. 가장 작은 시는 경기도의 구리시이며 가장 큰 시는 경북 안동시이다. 평균적인 면적을 가진 시는 전북 익산시이다.



가장 작은 시 : 경기도 구리시

평균적인 면적의 시 : 전라북도 익산시



가장 큰 시 : 경상북도 안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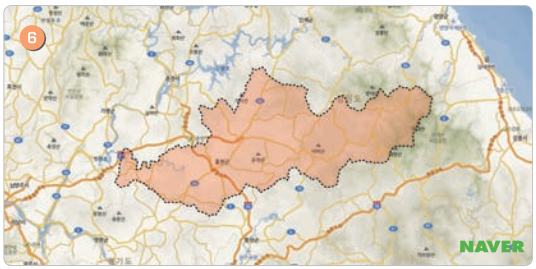
1. 33,301,915m² 2. 506,651,494m² 3. 1,521,256,347m²

군

2010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86개의 군이 있으며 그 평균면적은 662,802,246m² 이다. 제주도에는 "군"이 없으며, 경기도가 4개로 가장 적고, 전라남도가 17개로 가장 많은 "군"이 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에 2개의 "군"이 있고, 대전과 광주에는 없으며, 나머지 광역시에는 각 한 개씩의 "군"이 있다. 가장 작은 군은 경북 울릉군이고 가장 큰 군은 강원도 홍천군이다. 평균적인 면적의 군은 전남 보성군이다.

가장 작은 군 : 경상북도 울릉군

평균적인 면적의 군 : 전라남도 보성군



가장 큰 군 : 강원도 홍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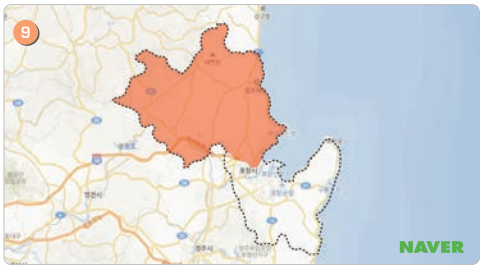
4. 72,892,429m² **5.** 663,487,990m² **6.** 1,818,894,884m²

구

2010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97개의 “구”가 있으며, 그 평균면적은 71,189,485m² 이다. 서울시의 “구”의 수는 25개로 가장 많은 구가 있다. 가장 작은 구는 부산광역시 중구이고 가장 큰 구는 경북 포항시 북구이다. 평균적인 면적의 구는 울산광역시 남구이다.

가장 작은 구 : 부산광역시 중구

평균적인 면적의 구 : 울산광역시 남구



가장 큰 구 : 경북 포항시 북구

7. 2,817,543m² **8.** 76,461,620m² **9.** 735,449,738m²

특별시 및 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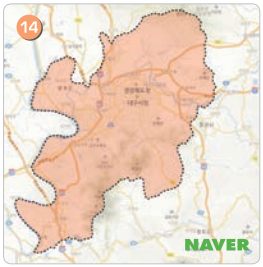
2012년도 기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순으로 면적이 넓다. 광주광역시가 가장 작고, 울산광역시가 가장 크다.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평균면적은 770,123,586m² 이다. 가장 면적이 넓은 울산광역시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면적을 합한 것보다도 넓다.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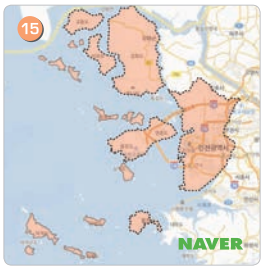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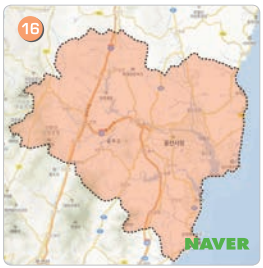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10. 501,187,243m² **11.** 539,966,056m² **12.** 605,207,639m² **13.** 768,408,741m² **14.** 883,683,229m²
15. 1,032,414,331m² **16.** 1,059,997,863m²

도

2012년도 기준, 제주, 충북, 전북, 충남, 경기, 경남, 전남, 강원, 경북의 순서로 면적이 넓다. 제주도의 면적이 가장 작고, 경상북도의 면적이 가장 넓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9개 도의 평균면적은 10,528,594,771.3m² 이다. 가장 큰 경상북도의 면적은 제주도의 10배가 넘는다.

17. 10,170,686,161m² **18.** 16,787,192,995m² **19.** 7,433,260,006m² **20.** 8,630,125,126m² **21.** 19,029,617,611m²
22. 10,533,624,555m² **23.** 12,256,590,572m² **24.** 8,067,075,955m² **25.** 1,849,179,961m²

강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한강, 대동강, 금강, 섬진강의 순서로 길이가 길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길이가 짧은 편이다. 아마존 강이 6,300km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압록강(808km)도 짧은 축에 속한다. 나일강은 6,671km에 달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압록강은 금강의 두 배, 섬진강의 4배의 길이이다.

26

한반도

한반도의 최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진이며, 최남단은 제주 남제주군 마라도, 최서단은 평안북도 용천구 마안도, 최동단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이다. 한반도의 길이는 약 1,000km이다. 남한의 면적은 한반도 총면적의 44.7%, 북한의 면적은 총면적의 55.3%이고 국토의 65.3%가 산지이며, 우리나라의 면적은 세계 109위이다(북한은 99위). 우리나라의 인구는 세계 25위(북한은 49위), 가장 면적이 큰 나라인 러시아 면적의 1/170에 불과하다.

27

26. 압록강 808km, 두만강 525km, 낙동강 517km, 한강 514km, 대동강 430km, 금강 410km, 섬진강 212km
27. 남한 100,148km², 북한 123,390km², 전체 면적 223,538km²

Summary

구

가장 작은 구 (부산광역시 중구) : 2,817,543m²
평균적인 면적의 구 (울산광역시 남구) : 72,552,058m²
가장 큰 구 (경북 포항시 북구) : 735,449,738m²

군

가장 작은 군 (경상북도 울릉군) : 72,892,429m²
평균적인 면적의 군 (전라남도 보성군) : 663,487,990m²
가장 큰 군 (강원도 홍천군) : 1,818,894,884m²

시

가장 작은 시 (경기도 구리시) : 33,301,915m²
평균적인 면적의 시 (전라북도 익산시) : 506,651,494m²
가장 큰 시 (경상북도 안동시) : 1,521,256,347m²

Summary

특별시/광역시

광주광역시 : 510,187,243m²
대전광역시 : 539,966,056m²
서울특별시 : 605,207,639m²
부산광역시 : 768,408,741m²
대구광역시 : 883,683,229m²
인천광역시 : 1,032,414,331m²
울산광역시 : 1,059,997,863m²

도

제 주 도 : 1,849,179,961m²
충청북도 : 7,433,260,001m²
전라북도 : 8,067,075,955m²
충청남도 : 8,630,125,126m²
경 기 도 : 10,170,686,161m²
경상남도 : 10,533,624,555m²
전라남도 : 12,256,590,572m²
강 원 도 : 16,787,192,995m²
경상북도 : 19,029,617,611m²

Summary

한반도

남　　한 : 100,148km²
북　　한 : 123,390km²
전체 면적 : 223,538km²

강

압록강 : 808km
두만강 : 525km
낙동강 : 517km
한　강 : 514km
대동강 : 430km
금　강 : 410km
섬진강 : 212km

Epilogue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작품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일컬어진다. 그 아름다운 음악의 악보를 보면, 실제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모차르트나 베토벤에게 악보를 잘 못 그린다고 흉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작곡가는 실제 음악이 중요한 것이지, 악보를 아름답게 그리는 일은 악보 필사가에게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보와 음악의 관계는 건축, 도시설계에 있어서는 도면과 실제 공간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악보는 조성음악의 경우에는 각 음표가 나타내는 음고 사이의 음정이 중요한데, 결국 이는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악보에는 시간적인 축을 따라 기능적, 심미적 영향력을 가지는 음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설계를 위한 도면 또한 그러하다. 개별적인 공간을 구획하는 선들은 공간의 규격을 나타내는 숫자를 따라 배치되며, 이러한 숫자는 공간적인 축을 따라 기능적, 심미적 영향력을 가지는 공간을 구현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정상적인 작곡가라면, 악보를 보면 어떠한 음현상이 구현될 것인지 대체로 읽어낼 수 있다. 악보를 읽지 못하는 작곡가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악보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것일까? 악보를 읽기 위해서는 음고와 음정이 가지는 효과, 나아가 화성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이 발생하게 되는 음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지식이 연결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동안의 노력이 소요된다. 좋은 설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이 발생하게 되는 공간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지식이 연결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경우는 매우 유사하다.

악기가 없어도, 소리 내지 않고도 악보를 읽을 수 있다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의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는 감각적인 실체 없이도 구현될 음현상을 가상적으로 떠올리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 건축물을 지어보지 않아도 설계도면을 통해 구현될 공간을 떠올리는 역량이야말로, 설계자의 기본적인 역량이다. 심오한 설계이론이나, 다양한 설계기법을 논의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설계과정에 있어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의 통합에 기반한 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쉬운 것은 쉬워서 대충하고, 어려운 것은 어려워서 제대로 못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쉬운 것부터 어렵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평면이나 입면중에는, 의외로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구석들이 때때로 남아있다. 화려한 CG, 조감도, 심지어 평면이나 입면도조차도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것이 많다. 읽어내지 못하는 공간을 평가할 수는 없다. 도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것인가? 척도에 대한 감각과 그를 표현하는 숫자를 아는 것은 좋은 설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References

Human Scale | 참고문헌

1. 신체

단행본

- Le Corbusier(2004), The Modular, Reprint ed. (New York: Faber and Faber, 1954), p.67.
- 대한인간공학회(2004),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보고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신태양(2008),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도서출판 국제, pp.177-178, p.184.

웹사이트

- ITALY Magazine, www.italymag.co.uk

2. 생활

단행본

- pmg 지식엔진연구소(2008),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기술사랑연구회(2007), Basic 중학생을 위한 기술 · 가정 용어사전, (주)신원문화사
- 서동민/IT동아 기자(2011), 디지털 저장 매체의 원전 CD(Compact Disc), 네이버캐스트
- 임병욱(2010),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전구의 원리, 네이버 캐스트 원리사전
-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2011),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일진사
-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2010), 책 첼로너, 마로니에 북스
- 한국식품과학회(2008), 식품과학기술대사전, 왕일출판사

신문기사

- 이나래 기자, 1억퀴즈쇼, 우리나라 지폐 재료는? '종이 아닌 면' , 〈매일경제〉, 2012년 4월 27일
- 임은희 기자, 핵융합연의 '에코컵' … "종이컵은 절대 안돼" , 〈(c)대덕넷〉, 2012년 04월 23일
- 조은주 기자, 전자책이 종이책을 이길 수 없는 5가지, 〈아시아투데이〉, 2011년 6월 7일
- 최익호 기자, 새 지폐들 유통수명 크게 늘었다, 〈매일경제〉, 2012년 03월 30일

웹사이트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12876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2%85%EC%9D%B4%EC%BB%B5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5%84%EC%9D%B4%EB%A7%A5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7%AD%EB%B2%95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ISO_216
- 위키백과(일본), http://ja.wikipedia.org/wiki/%E8%8F%8A%E5%88%A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1665&mobile&categoryId=1601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http://www.komsco.com/information/currency/korea/chart/chart06.asp
- 한국언론연구원(1993), 매스컴대사전, 한국언론연구원

3. 주택

단행본

- 대한주택공사(2007), 2007 기계설비공사 표준상세도, p.113.
- 최상복(2004), 산업안전대사전, 도서출판 골드
- 토목관련용어편찬위원회(1997), 토목용어사전, 도서출판 탐구원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한국산업표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2010년 9월 10일
- 국토해양부령 제433호,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2년 3월 17일
-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4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2009년 10월 22일
- 우편사업본부고시 제2007-39호,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 1999년 11월 22일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6), 사무용 의자의 치수, KS G 4101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8), 학생용 책상 및 의자 KS G 2010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9), 문세트, KS F 2109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10), 가정용 학습 책상, KS G 4208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11), 학생용 책상 및 의자, KS G 2010
-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2011), 「단체표준 – 가정용 싱크대」, [SPS-KKEC 001-0438:2011]

신문기사

- 김갑순(대전서부소방서장), 왜 우리는 비상구를 중요시하는가, 〈대전일보〉, 2010년 7월 28일 22면
- 서윤경 기자, 몰아서 장보는 맞벌이 부부 "냉장고 더 컸으면…", 〈국민일보〉, 2012년 7월 9일 16면

웹사이트

- 금호엘리베이터 홈페이지, http://kumhoelevator.c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45378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55290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37154
- 이강목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
- 한국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홈페이지, http://www.zero-foodwaste.or.kr/about/about01.do
- 현대엘리베이터 홈페이지, http://www.hyundaielevator.co.kr

Street Scale | 참고문헌

1. 보도

단행본

– 동방디자인 교재개발원(2006). 인테리어 용어사전. 동방디자인
– 방경식(2011).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 서울시(2009).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pp.118, 155–156, 160–163.
– 서울시(2009). 디자인서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pp.218, 222.
– 서울시(2010). 2010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Ⅳ. pp.28–30.
– 서울시(2011). 서울 시내버스 승차대(가로변) 표준형디자인. pp.28–39.
– 잭 첼로너(2010).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 이사빈 역. 마로니에북스
시행규칙. 행정규칙 및 한국산업표준
– 국토해양부령 제34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2011년 6월 30일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7호. 「옥내소화전방수구 · 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2010년 6월 27일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19호. 「우체통 설치현황」. 2012년 4월 13일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2). 옥외용 벤치. KS G 4213:2002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8).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KS F 4561:2008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9). 조립식 울타리(금속제). KS D 7040:2009

신문기사

– 강경민 기자. ‘쓰레기통 확충’ 서울시의 고민. 〈한국경제〉. 2012년 6월 14일 34면
– 박종성 기자. 가로변 휴지통 모두 없앴다. 〈경향신문〉. 1995년 02월 07일 20면
– 이명건 기자. 거리휴지통 턱없이 부족 · · “짜증나요”. 〈동아일보〉. 1999년 06월 22일 20면
– 정필재 기자. 쓰레기통은 없애버리고 단속만 하면 어쩌라구요“. 〈아시아투데이〉. 2012년 5월 10일
– 한준규 기자. 서울시 ‘디자인 가로판대매’ 첫선. 〈서울뉴스〉. 2008년 7얼 30일. 15면
– [이지스터디]맨홀 뚜껑 왜 모두 원형? 삼각형 사각형은 왜 없을까?. 〈동아일보〉. 2009년 11월 09일

웹사이트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용어사전. http://www.auric.or.kr/User/Dict/DictMain.aspx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7198
– 사이버우정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postmuseum.go.kr

2. 도로

단행본

– 경찰청(2011),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서울시(2009),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p.46, pp.169–170.
– 토목관련용어편찬위원회(1997), 토목용어사전, 탐구원

행정규칙 및 한국산업표준

– 경찰청훈령 제635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관리에 관한 규칙」, 2011년 7월 22일
–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2012년 4월 15일
– 국토해양부예규 제100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9년 8월 24일
– 국토해양부예규 제135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09년 11월 11일
– 국토해양부예규 제136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09년 11월 11일
– 국토해양부예규 제167호,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10년 6월 15일
– 국토해양부훈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1년 7월 26일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4), LED 교통신호등, KS C 7528:2004
– 환경부고시 제2009–221호,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 2009년 9월 17일

신문기사

– 박종일 기자, 신도산업 안전유도로봇이 공사현장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아이사경제〉, 2008년 10월 20일

웹사이트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8648

3. 건축물

단행본

– 방경식(2011),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경제 분야, 2011, Human & Books

정기간행물

– (주)공간연구소(1989), [근작]서울법원종합청사(1), v.101(1989–10), pp.68–75.

신문기사

– 류영상 기자, 교보생명빌딩, 리모델링 완공 · · '비즈니스빌딩 탈바꿈', 〈뉴시스〉 2011년 1월 13일

웹사이트

– N서울타워 홈페이지, http://www.nseoultower.com
– 국회의사당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46048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18964
– 동서울터미널 홈페이지, https://www.ti21.co.kr
– 디지털성남문화대전, http://seongnam.grandculture.net
– 명동성당 홈페이지, http://www.mdsd.or.kr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서울지명사전, http://culture.seoul.go.kr/sggDic/sggDic.do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

4. D/H 비

단행본 및 학술논문

– 나루미 구니히로 외 편저, 도시디자인연구회(1997), 도시디자인 수법, 발언, p.130 재구성
– 김기호(2002), 상업지역 가로변건축물의 건축물 외관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 논문, p.37.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문기사

– 박종일 기자, 길에서 희망을 찾다, 〈아시아경제〉, 2009년 07월 19일

웹사이트

–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contents_id=1776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45797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0%95%EB%82%A8%EC%97%AD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orean.visitkorea.or.kr

Urban Scale | 참고문헌

1. 공원, 광장

웹페이지

– 남산공원 홈페이지, http://parks.seoul.go.kr/template/default.jsp?park_id=namsan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308623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41823
– 보라매공원 홈페이지, http://parks.seoul.go.kr/template/default.jsp?park_id=boramae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http://grandpark.seoul.go.kr/main.do
– 서울시 열린광장, http://plaza.seoul.go.kr
– 서울 어린이대공원 홈페이지, http://www.childrenpark.or.kr
– 여의도공원 홈페이지, http://parks.seoul.go.kr/template/default.jsp?park_id=yeouido
– 올림픽공원 홈페이지, http://www.olympicpark.co.kr
– 청계천 홈페이지, http://square.sisul.or.kr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or.kr

2. 지구

단행본

– 한대광(2010), 서울의 관문 서울 서초구, 네이버캐스트
– 최정규, 박성원, 정민용, 박정현(20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01, 마로니에북스

신문기사

– 박종일 기자, 길에서 희망을 찾다, 〈아시아경제〉, 2009년 07월 19일
– 채종원 기자, 신촌 이대 하루 유동인구 11만명 · · 커피전문점만 60곳, 〈매일경제〉, 2012년 5월 22일

웹페이지

– 경복궁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
– 광장시장 홈페이지, http://www.kwangjangmarket.co.kr
–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http://www.snmb.mil.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5512&mobile&categoryId=233
–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0&contents_id=2185
– 동대문관광특구 홈페이지, http://www.dft.co.kr/ko/
– 롯데월드 홈페이지, http://www.lotteworld.com/
– 에버랜드 홈페이지, http://www.everland.com/web/index.html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0%95%EB%82%A8%EC%97%AD
– 이태원관광특구 홈페이지, http://itaewon.or.kr/
– 인사동문화 홈페이지, http://www.goinsadong.co.kr/
– 중구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junggu.seoul.kr/tour/index.jsp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orean.visitkorea.or.kr/kor/ut/index.kto

3. 도시 Urban

단행본

– 안양시(1992), 안양평촌지구 도시설계도면
– 국토해양부(2011), 「지적통계연보」

웹사이트

– 국토해양부(2011), 「국토종합계획」, http://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57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Scale Practice For Architecture & Urban Design

건축·도시 설계를 위한 척도연습

ⓒ 2013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일 2013년 8월 26일 지은이 오성훈, 김원경 펴낸이 제해성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31-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6 홈페이지 www.auri.re.kr 이메일 information@auri.re.kr
사진촬영 오성훈, 김원경, 변혜영 3D 김효진 교열 조지은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ISBN 978-89-97468-67-6